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25

01

유럽 박물관 기행

모두를 위해 만든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테너의 하이C, 그 공포에서 환희로
바뀌는 '라보엠'의 로돌포 이야기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

인순이&드니성호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제54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9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1.18**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마스카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Mascagni · Intermezzo from "Cavalleria Rusticana"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Op.35
Allegro moderato, Canzonetta, Andante, Finale. Allegro vivacissimo

푸치니 · 교향적 기상곡
Puccini · Capriccio Sinfonico

차이콥스키 · 이탈리아 기상곡
Tchaikovsky · Capriccio Italien, Op.45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신지아 Zia Hyunsu Shin, Violi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己亥年 신년 음악회

2019. 1. 24 Thu
7:30 PM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프로그램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신모듬 1·2·3악장]
작곡: 박범훈

김동훈, 한용섭

최재근, 전성호



국립부산국악원 연희팀

최오성, 전학수

박재현, 이주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



2019년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로의 도약

2019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동양문화에서 돼지(亥)는 재물(財物) 복을 의미하고 다산(多産)을 상징했습니다.

게다가 오해에서 '기(己)자'는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를 뜻하며, 색으로는 재물운을 부르는 황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에는 재물과 행운의 상징인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기운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민선7기 출범 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혁신 없이는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의지로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부산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로 씩씩이 달려왔습니다. 기해년 올해는 시정운영의 핵심적 가치를 '사람 우선, 경제 살리기, 삶의 질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약속한 정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한편, 지역 경제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기틀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올 한해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행복한 문화도시, 역동적 예술산업도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글로벌 평화경제도시라는 4대 전략 속에 9개 추진과제를 세우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원과 소통부족으로 중단됐던 오페라하우스는 부산항만공사(BPA)에서 건립비 8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최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365일 모든 시민이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북항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북항 재개발 해양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서남쪽으로는 원도심과 근·현대 역사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벨트를, 동북쪽으로는 공연·전시·교육시설 등을 연계한 창의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북항 일대에는 문화자유구역인 '유라시아 컬처 플랫폼'을 조성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공식출범한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한 해 순수전문예술을 지향하는 부산문화회관과 대중예술을 아우르는 부산시민회관을 안정적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ACP) 총회를 부산에서는 처

2019

음으로 유치, 아시아 12개국 200여명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예술산업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문화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제도시·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출범 3년을 맞는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문화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만큼 대중성과 예술성, 다양성과 차별성을 아우르는 품격 높은 공연, 전시를 기획, 시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확산의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사업을 대폭 확장해 (재)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좌로 부산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연장 시설개선 국·시비 사업비를 대폭 확보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의 숙원사업인 부산문화회관 연습실 조성과 쾌적한 공연환경을 위해 노후화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올 한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두 공연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문화를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방 교향악단으로서 최초로 창단한 시립교향악단,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시립무용단 등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역사와 전통으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도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직장인 등을 위한 관객 맞춤형 순회공연을 통해 문화나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부산문화를 위해 땀 흘릴 부산시립예술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한발 한발 전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9년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겨울방학 특집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세계적인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미술관에 간 윌리>와 <우리 엄마>가
오디의 음악교육극으로 펼쳐집니다!

공연 하나

생각이 커지는 허리의 공연

미술관에 간 윌리

2019.1.10(목)~2019.1.13(일)
목, 금, 일 오전 11시 /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 둘

클래식 가독음악극

우리 엄마

2019.1.17(목)~2019.1.20(일)
목, 금, 일 오전 11시 /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신기한 악기소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책임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문의 및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오디

Contents

08



-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

32



-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1월 공연캘린더

36



- 16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이용관

- 18 NEW YEAR'S RESOLUTION**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예술단
2019 주요 계획

- 30 BACKSTAGE OPERA**
테너의 하이C, 그 공포에서 환희로 바뀌는
'라보엠'의 로돌포 이야기

- 32 MUSEUM OF EUROPE**
모두를 위해 만든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The National Gallery, London)

- 36 TRAVEL WITH YOU**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로 떠난 겨울여행

- 41 PREVIEW**

- 48 REVIEW**

- 50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7 NEW BOOK**
새로 나온 책

- 58 BSCC NEWS**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9년 1월호 통권 32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주간 이승훈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12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영원한 디바 인순이가 부산시민들을 위한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신년무대를 갖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최근 TV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해 화제가 된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가 함께 출연, 듀엣무대와 더불어 TV에서 못 다한 가족 이야기로 따뜻한 감동이 있는 신년무대를 선사한다.

인 순 이

영원한 국민 디바 인순이

데뷔 40주년을 맞는 가수 인순이는 지난 1978년 여성그룹 '희자매'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1983년 출중한 댄스 실력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밤이면 밤마다'를 빅히트 시키며 인기가수 대열에 올랐다. 이후 한동안 대중들에게 잊혀지다 1990년대 들어 TV프로그램 '열린음악회'에 출연하면서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2004년,



피치링으로 참여했던 가수 조PD의 '친구'에 이어 2007년 카니발의 리메이크곡 '거위의 꿈'이 연달아 큰 히트를 치면서 젊은 세대에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1999년에 이어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가지면서 화제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2011년에는 당시 큰 화제를 낳았던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발라드, R&B, 댄스, 팝, 심지어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남녀노소를 모두 장악하는 흡입력 강한 무대로 사랑받아온 인순이는 영원한 디바, 라이브의 여제, 국민가수 등 수많은 수식어와 함께 이시대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사랑받고 있다.

세계 정상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

가수 인순이와 함께 무대에 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는 한국에서 태어나 벨기에로 입양된 한국계 기타리스트로, 지난 2005년 ECHO(유럽 콘서트홀 협회)로부터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무대를 가진데 이어 2012년에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에 기타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8살 때 기타를 시작한 후 14살 때 벨기에 영 톨런트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드니성호는 벨기에 몽스 왕립음악원과 파리고등사범음악원,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성장한 개인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더불어 조수미, 인순이 등 국내 최정상의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과 음반

1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커버스토리

작업을 펼쳐 대중들에게 친근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사랑받고 있다. 드니성호는 지난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VVIP 실내음악 감독을 맡아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과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니성호가 결성한 범세계적 프로젝트그룹 'COAST82'와 함께 무대에 선다. 벨기에에서 자란 대한민국 기타리스트 드니성호와 프랑스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활동하는 사운드 디자이너 모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운으로 구성된 'COAST82'

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유니크하고 탄탄한 정체성으로 강력한 음악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클래식 음악 특유의 탁월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선율, 탄탄한 구성 그리고 열정과 섬세한 감성으로 세련된 음악적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애를 노래하는 가슴 따뜻한 신년무대

이번 무대에서 인순이는 그동안 콘서트를 함께해온 코러스, 백댄스, 레퍼까지 총 출동해 그의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 세

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와 함께 '엄마'로서의 인순이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 가슴 따뜻한 무대를 만들어준다. 또한 '인간극장'에서 못 다한 드니성호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보고, 곡 중간마다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해 관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COAST82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

세계가 주목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가 (재)부산문화회관 2019 신년음악회를 위해 1월 12일 부산을 찾는다.

드니성호는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성장한 그의 개인사가 TV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알려졌다. 지난 2006년 한국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해외 동포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초청받아 한국을 첫 방문한 드니성호는 이후 자신의 뿌리를 찾기위해 국내 무대에도 서고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친부모님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2008년, 부산을 찾았던 드니성호는 부산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향인 부산은 그래서 언제나 그에게 특별하다.

“부산 무대에 설 때마다 친부모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어쩌면 제 무대에 이미 다녀가셨지만 미안한 마음에 저를 찾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꼭 한번은 뵙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을 줬던 벨기에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던 드니성호는 8살 때 클래식 기타와 만났다. 그가 원했던 피아노는 아니었지만 기타는 곧 그의 운명이 되었고 14살의 어린나이에 벨기에 ‘Jeunes Talents’에서 1위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재능에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2004년 유럽콘서트홀협회가 꿈은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고 이듬해 연주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데뷔무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정형화된 음악에서 벗어나 거침없는 음악적 도전으로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보여온 드니성호는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작곡에서 프로듀싱까지 다재다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평소 독주용 악기로서 클래식 기타가 지닌 음악적 한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그는 범세계적 프로젝

트그룹 ‘Coast82’를 결성,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세련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다. 부산을 연상하는 단어인 ‘Coast(해안)’와 대한민국 국가번호인 ‘82’를 합친 그룹명 ‘Coast82’에는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드니성호는 2년 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홀로 한국에 있으며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에게 장인, 장모는 친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올 여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드니성호도 아빠가 된다.

“지난 한해는 아이가 생기면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음악적 날개를 달아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무엇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드니성호는 이번 신년음악회에서 가수 인순이와 함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인순이와는 6년 전에도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오랜만에 함께 서는 무대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드니성호. 이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개인독주회를 비롯해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

2019 JANUARY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점**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회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회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2월 24일(월)~2019년 3월 3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아동 2만3천원, 성인 1만7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PMC네트웍스 1599-7372</p> <p>◆ 관람시간 평일(화~금요일) 오후 1:20, 2:00, 2:40, 3:20*(평일 오전은 단체관람으로, 일정에 따라 개인 관람 가능) 주말·공휴일 오전 10:20, 10:50, 11:20, 11:50, 오후 1:20, 1:55, 2:30, 3:05, 3:45, 4:20</p> <p>※ 체험시간 1시간 40분 ※ 매주 월요일 휴관</p>		1
6	7	8
<p>스트링 아데소 창단연주회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UKO 유스오케스트라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중 전석 5천원 UKO 유스오케스트라(010-4125-4335)</p>
13	14	15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율리' 11: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0	21	22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우리엄마' 11: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월드 발레그랑프리-코리아 11:00 중 한국발레재단(02-396-5188)</p>	<p>월드 발레그랑프리-코리아 13:00, 19:00 중 한국발레재단(02-396-5188)</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7	28	29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11:00, 14:00, 16:30 대 6만원·4만5천원/(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p>월드 발레그랑프리-코리아 11:00 중 한국발레재단(02-396-5188)</p>	<p>◆ 테너 김상곤 교수 명예퇴임 기념독창회 19:30 중 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2019 신년음악회 '비엔나 바로크 오케스트라' 19:30 점 5만5천원·4만원·2만5천원 와이앤케이코리아(010-4460-449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WED	THU	FRI	SAT
2	3	4	5 2019 정동하 투어 콘서트 in 부산 'Cross Road' 18:00 대 11만원·9만9천원·7만7천원 (주)하늘이엔티(1899-0042)
9	1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윌리' 11: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윌리' 11: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 17:00 대 9만9천원·7만7천원·5만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윌리' 11:00, 14:0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최은정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전 최은정(010-9256-2998)
16	1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우리엄마' 11: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9 신년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우리엄마' 11: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우리엄마' 11:00, 14:00 중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월드 발레그랑프리-코리아 09:00 중 한국발레재단(02-396-518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월드 발레그랑프리-코리아 15:00 대 한국발레재단(02-396-5188)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己亥年 신년음악회' 19:30 중 1만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이해민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전 전석 1만원/이해민(010-5419-261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_미켈란젤로vs다빈치' 19:30 중 3만원·2만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11:00, 14:00, 16:30 대 6만원·4만5천원/(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김지연 아코디언 팍스오케스트라 '2019 신년 부산 첫 콘서트' 16:00 중 3만원·2만원/김지연(02-579-7080) 시대 속의 클래식, 클래식 속의 시대 17:00 전 전석1만원/Major and Minor(010-8717-796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

2019 JANUARY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전시실</p> <p>법용스님 선묵화 자선특별전 1월 20일(일)-1월 30(수) 제1전시실 법용스님 010-5270-0981</p>		<u>1</u>
<u>6</u>	<u>7</u>	<u>8</u>
<u>13</u>	<u>14</u>	<u>15</u>
<u>20</u>	<u>21</u>	<u>22</u>
<p><u>27</u></p> <p>2019 이승환 전국투어 '최고의 하루'-부산 17:00 대 14만3천원·12만1천원·11만원·9만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p>	<u>28</u>	<u>29</u>

WED	THU	FRI	SAT
<p style="text-align: center;"><u>2</u></p>	<p style="text-align: center;"><u>3</u></p>	<p style="text-align: center;"><u>4</u></p> <p>블루진 가족 콘서트 19:00  전석 4만원 두레엔지아이엔터테인먼트(010-2570-8500)</p>	<p style="text-align: center;"><u>5</u></p>
<p style="text-align: center;"><u>9</u></p>	<p style="text-align: center;"><u>10</u></p>	<p style="text-align: center;"><u>11</u></p>	<p style="text-align: center;"><u>12</u></p> <p>VIXX 팬미팅 17:00  초대/(주)부산롯데호텔(810-5523)</p>
<p style="text-align: center;"><u>16</u></p>	<p style="text-align: center;"><u>17</u></p>	<p style="text-align: center;"><u>18</u></p>	<p style="text-align: center;"><u>19</u></p>
<p style="text-align: center;"><u>23</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2019 새해음악회’ 19:30  전석 1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 style="text-align: center;"><u>24</u></p>	<p style="text-align: center;"><u>25</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싱 스트리트’ 14:0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 style="text-align: center;"><u>26</u></p> <p>2019 이승환 전국투어 ‘최고의 하루’-부산 18:00  14만3천원·12만1천원·11만원·9만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p>
<p style="text-align: center;"><u>30</u></p>	<p style="text-align: center;"><u>31</u></p>		

반갑습니다

66

지난 30여년 세월동안 문화의 불모지
부산이라는 오명속에도 부산문화회관은
부산 문화의 꽃을 피우는 거름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때, 대표이사를 맡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99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이용관

12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간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신임 대표이사는 1956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했으며 단국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문화사업 부장과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사무국장이자, 부천문화재단 전문위원, 안양문화예술회관 관장, 한국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4대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을 지낸 바 있다.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부산을 알고 있지만 부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을 받은 이용관 대표이사는 공연기획부터 공연장 경영, 대학 강의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문화예술경영 전문가라 앞으로 그가 그려낼 부산문화회관의 미래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연기획자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용관 대표이사는 특히 공연장의 운영시스템 혁신과 관객개발에 관심이 많다. 문화적 환경이 변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커지는 이 때 무엇보다 예술경영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는 그래서 공연시즌제 도입과 예술교육을 강조한다. 공연시즌제는 시기를 정해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선진국형 공연 마케팅기법으로, 관객들은 관심있는 공연관람을 미리 계획할 수 있고 공연장 역시 빠른 공연 프로그래밍을 통해 홍보와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이끌 수 있어 최근 많은 공연장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용관 대표이사는 국내 시즌제 도입 초창기였던 지난 2003년 부천문화재단 전문위원 재임시절에 이어 2004년부터 안양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있으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즌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그랜드 시즌제’를 도입,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 공공공연장 최초로 유료 객석 점유율 3년 연속 70% 이상을 유지하는 성과를 날기도 했다.

“공연예술에 있어 관객은 예술적 기반이자 경제적 지원자입니다. 공연예술을 무대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객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즌제 도입과 예술교육이야말로 유료 관객 수를 늘리고 잠재 관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용관 대표이사. 예술경험이 없는 사람들

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잠재된 관객을 열성 관객으로 변화시키고 관객규모도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그는 특히 더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취약·소외계층들을 공연장으로 오게하여 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잊지말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들어 지역예술이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는 만큼 시립예술단의 존재감도 더 커져야 한다는 이용관 대표이사. 한 번 공연 후에 사라지고 마는 외부공연보다는 지역예술의 가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시립예술단의 공연제작이 더욱 필요하다는 그는 앞으로 극장 중심이 아닌 시립예술단 중심의 운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학교 선생님인 제 친구가 어느날 그러더군요, 자기 제자 중에 공부든 성격이든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제자가 있어서 도대체 가정교육의 비결이 뭘까 궁금하여 가정방문을 했는데, 알고보니 공연장을 즐겨 찾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다네요. 예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뿐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성적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열린 공연장으로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이용관 대표이사. 평소 즐겨 인용하는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경구처럼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감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으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문화회관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



365일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부산문화회관

2019년 더욱 업그레이드 된 시리즈 무대

2017년 재단법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시작된 부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기획시리즈는 올 한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한 해 관객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으로 관객들을 불러모은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도 대중성과 예술성, 다양성과 차별성을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출범 3년을 맞는 올해는 극장 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재단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부산문화회관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잡은 시리즈 공연은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이자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인인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모두 4차례 진행된다. 원년 무대부터 ‘마티네 콘서트’를 이끌어온 ‘음악계의 괴물’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도 진행과 연주를 맡아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음악회를 선사한다. 4월 24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5월 22일, 8월 28일, 10월 2일 4차례 열리는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올해도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오페라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노자와 베토벤’은 2019년 ‘고진감래(苦進感來)’라는 새로운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2017년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어 2018년 ‘고주망태(孤酒忘態)’로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했던 최진석 교수와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올해도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2019 노자와 베토벤은 3월 3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6월 22일, 9월 28일, 12월 28일 4차례 이어진다.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교향악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NN방송교향악단은 올해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새로운 시리즈로 시민들과 만난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 2016년 4월, 지역 방송 최초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 클래식음악의 장을 넓혀오고 있다.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지휘자 금난새는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3월 14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6월 5일, 9월 19일, 12월 12일 4차례 진행된다.

‘부산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부산 문화가 있는 날’은 부산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옮긴 ‘부산판 문화가

부산문화회관



있는 날'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혜택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첫 무대인 영화와 클래식이 함께 공존하는 예술융합 프로그램 '그림 읽어드리는 베토벤(1월 25일)'을 시작으로 'Bulgarian Vooces Berlin & Indonesia Youth Choir(2월 22일)', 부산시립교향악단(3월 29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4월 26일), 부산시립무용단(5월 31일), 부산시립합창단(6월 28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관객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무대

2019년 올 한해도 부산문화회관에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연주단체의 발길이 이어진다. 또,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에는 영원한 국민 가수 인순이와 최근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가 신년음악회 무대에 선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인순이는 1978년 여성그룹 '희자매'의 멤버로 데뷔한 후 발라드, R&B, 댄스, 팝, 심지어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남녀노소를 모두 장악하는 흡입력 강한 무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이 고향인 드니성호는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성장한 개인사가 국내에 알려지며 더욱더 화제가 되었다. 엄마로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인순이의 노래와 드니성호의 연주, 그리고 TV에서 못 다한 그들의 가족 이야기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는 1월 12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전 세계가 인정한 독보적 스테디셀러 뮤지컬 '엘리자벳'은 6년만에 다시 부산문화회관을 찾는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후였던 엘리자벳을 주인공으로 한 '엘리자벳'은 '엘리자벳이 합스부르크 왕국에 죽음을 데려왔다'는 오스트리아의 민담에서 영감을 받아 '죽음(Der Tod)'과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황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역사와 판타지적 요소가 결합된 매력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귀에 감기는 킬링 넘버와 650년 전통을 가진 합스부르크 왕가의 고전미를 담은 의상과 세트까지 서사, 음악, 무대예술의 3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수작으로, 3월 22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5월에는 '신의 내린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라는 세계 음악계의 극찬과 함께 화려한 무대로 청중을 사로잡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1986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래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한 조수미는 최근에는 대중가수와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연출까지 드라마틱한 무대로 세계적인 성악가를 넘어 국민적 엔터테이너로 사랑받고 있다.

6월에는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자'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다. 지난해 1월 7일 부산문화회관에서



(c)Akos Stiller



(c)Akos Stiller

열렸던 그의 독주회는 예매 8분만에 대극장 1,400여석이 매진되는 등 ‘조성진 열풍’의 본모습을 제대로 확인시킨 자리였다. 올해는 헝가리 출신의 마에스트로 이반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선다. ‘믿고 듣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지난 1983년 이반 피셔와 졸탄 코치슈가 헝가리 최고의 관현악단을 목표로 젊고 유능한 연주자를 발탁해 결성한 젊은 오케스트라로, 정교한 음색과 화려한 하모니,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로 세계 음악팬들의 찬사를 받아오고 있다. 젊은 거장 조성진과 마에스트로 이반 피셔가 들려줄 앙상블에 벌써부터 부산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연은 6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밖에 2019년에는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무용,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무대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올해도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도 2019년 첫 작품으로 1월 22일부터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17년 9월,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사랑채극장은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전용극장으로, 그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그동안 개관 기념작인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플라세가지 안전약속’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을 무대에 올린 사랑채극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1월 22일~3월 22일)’을 첫 작품으로 창작가족뮤지컬 ‘아빠! 함께해요!(4월 9일~6월 16일)’, 어린이 안전체험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7월 2일~9월 8일)’ 등 부산지역에서 제작된 작품을 중심으로 세 작품을 선보인다.

1월, 겨울방학을 맞아 세계적인 그림책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음악교육극으로 제작한 ‘미술관에 간 율리’, ‘우리엄마’ 등 두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00년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앤서니 브라운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그림과 건조하면서도 블랙유머가 넘치는 섬세한 글이 특징으로, 대표작으로는 조끼 입은 귀여운 침팬지 율리가 등장하는 ‘율리 시리즈’와 ‘동물원’, ‘고릴라’, ‘돼지책’, ‘터널’,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등이 있다. 공연장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음악수업인 ‘미술관에 간 율리’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엄마의 목소리로 들던 그림책을 음악과 춤, 악기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족음악극 ‘우리엄마’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들의 히어로 ‘미니특공대X’의 대활약을 그린 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도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수준높은 기획전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17년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전시교육팀을 신설, 그동안 대관 위주의 전시에 그쳤던 전시실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난 한 해 수준높은 기획전으로 관객과 만났다.

2018년 첫 기획전으로 세계의 저널리즘을 이끌었던 사진잡지 ‘라이프’에 수록된 작품들을 엄선,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했던 ‘라이프 사진전’에 이어 지난 12월 24일부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가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로 오브제 체험전을 선보인 이영란 작가의 감성체험 콘텐츠인 ‘가루야 가루야’는 밀가루를 이용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오감만족 체험놀이로, 전시는 올해 3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또, 6월에는 예술과 IT미디어가 결합된 ‘미디어아트’전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좌



지난 한 해,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올해 고품격 프리미엄 강좌와 이색적인 특강 등 더욱 다채롭고 수준높은 강좌들을 기획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한다.

우선 지역대표 문예기관의 특색을 십분 살린,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강좌가 눈길을 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부터 합창지휘법을 배우는 ‘지휘자 클래스’와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 오후에 열리는 ‘첼로’ 강좌는 타 강좌와 달리 주변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부산시립예술단 단원의 수준높은 강의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 올해는 아카데미의 새로운 장르로, ‘미술실기’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모노타이프 판화기법을 응용해 나만의 수제 명함을 만들어보는 ‘Make it! 인생 명함’ 강좌를 오는 1월 특강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어 2분기 강좌에서는 북아트 수업이 기획중에 있다. 최고의 명반, 역사에 기록된 공연실황들을 감상과 해설로 즐기는 음악 강좌는 인지도 높은 강사들을 섭외중에 있으며, 1분기 강좌에서는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해설로 유명한 이용숙과 함께하는 ‘이용숙의 클래식 무대’ 강좌를 마련해 수강신청중에 있다.



이밖에 음악의 장르를 다양화하며 현대음악 또는 대중가요를 해석, 감상할 수 있는 특강도 계획중이며, 지난해 참신한 주제와 폭넓은 해석으로 호평을 받은 뮤지컬 강좌도 올해 수강생들을 다시 찾아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부산시민회관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풍성한 무대



차별화된 전시로 관람객 끌어들이기

지난 한 해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한 부산시민회관이 올해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가 열리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우수 아티스트 초청공연과 국제페스티벌과의 협업을 통해 유명예술단체를 초청, 국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한다.

1월 23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9 새해음악회’로 2019년 힘찬 출발을 알리는 부산시민회관은 2월 9일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로 관객과 만난다. 폭발적인 무대와 호소력 짙은 가창력의 소유자 차지연을 비롯해 리사, 민우혁, 박송권 등 최근 뮤지컬계에서 활발한 활동중인 뮤지컬배우들이 출연, 유명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부산시민회관의 특별한 야외축제 ‘시민뜨락 축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기념으로 처음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시민뜨락축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4월과 5월, 9월과 10월 6달동안 총 14회의 무대가 펼쳐진다.

지나해 처음 개최되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축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해외 아동·청소년 예술축제’도 올해 7월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개최하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와의 협업무대로, 지난해 출품작이었던 스페인, 캐나다 작품에 이어 올해는 국내에서 잘 접할 수 없는 스웨덴, 아프리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 아마추어 밴드의 등용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는 올해 11월 16일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산직장인밴드 경연 대회는 해가 갈수록 참여밴드가 늘어나면서 직장인 음악인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나해 KT&G 상상마당과 함께 국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퀸틴 블레이크展 in 부산’을 개최했던 부산시민회관은 올해 첫 기획전인 ‘스타일은 영원하다-노만 파킨슨’전으로 1940년대 영국 패션 사진계의 혁명가였던 노만 파킨슨을 만난다. 전시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보호,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로 ‘반려동물’전을 6월부터 두 달간에 개최하며, 지난해 4월 문을 연 갤러리 창은 올해도 부산지역 청년작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연중 운영된다.

부산시립예술단, 품격있는 무대로 관객과 소통

지난 한 해 부산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다양한 무대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나온 부산시립예술단은 2019년 올 한해도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R.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대장정 완주

지난 한 해 젊은 패기와 탁월한 실력으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던 상임지휘자 최수열과 새로운 도약을 꾀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9년 올 한해도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차별화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2017년 최수열 지휘자 취임과 동시에 국내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에 도전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슈트라우스 서거 70주년을 맞는 2019년 올해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완주한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큰 ‘알프스교향곡’(4월 16일, 550회 정기)을 시작으로 그의 가장 대중적인 교향시 ‘돈 후안’(9월 27일, 554회 정기), 그리고 니체의 실존주의 철학을 9개의 섹션으로 표현한 걸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11월 22일, 556회 정기)를 마지막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국내에서 첫 시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프로젝트를 올해 마무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시대별, 나라별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편, 각 계절과 작품에 맞는 테마를 부제로 선정,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오랜만에 부산무대에서 연주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2월 15일, 548회 정기)을 비롯해 차이콥스키, 푸치니, 베토벤, 모차르트, 시벨리우스, 라벨, 말러, 브람스, 엘가, 생상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골고루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최수열 지휘자는 올해 무대에서 지난 2001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국내 초연한 작곡가 윤이상의 유작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5월 17일, 551회 정기), 스웨덴을 대표하는 현대작곡가 한데르스 힐보리의 2005년도 작 ‘열한개의 문’(11월 22일, 556회 정기)을 통해 난해하다고만 여겨질 수 있는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을 지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또, 올해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클래식 스타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을 찾는다. 2019년 첫 협연자로 ‘2019 신년음악회’ 무대에 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1월 18일, 547회)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손얼음(3월 7일, 549회 정기), 비올리스트 김상진(5월 17일, 551회 정기),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6월 14일, 552회 정기), 호른리스트 김홍박(9월 27일, 554회 정기), 첼리스트 김두민(10월 25일, 555회 정기)과 부산 출신의 오르가니스트 신동일(11월 22일, 556회 정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임홍균(5월 17일, 551회 정기),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부산 출신의 소프라노 서선영, 경성대학교 교수인 메조소프라노 양승미(12월 19일~20일, 557회 정기) 등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두 11차례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과 라인업을 미리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예매에 들어가면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일부 공연의 경우 대부분의 좌석이 예매되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관객맞춤공연 선사

지난 한 해 우리 국악의 멋과 신명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났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9년 올 한해도 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관객맞춤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합창의 즐거움을 전하는 다양한 무대

2019년 올해도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날 부산시립합창단은 올 한 해 4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 한해 5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己亥年 신년음악회'(1월 24일, 특별)로 2019년을 힘차게 출발한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연희팀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신모듬'으로 신년음악회에 걸맞은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춘음악회'(3월 26일, 200회 정기)에서는 해운대, 태종대, 오륙도 등 '부산팔경'을 소재로 한 국악관현악 및 협주곡을 들려주며, 제21회 정기연주회(4월 26일)에서는 조선 풍속화의 두 거장인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과 전통음악을 접목시킨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는 제202회 정기연주회(6월 5일)를 통해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국악을 들려주며, 7월에는 국악의 멋과 신명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음악의 밤'(7월 4일~5일)이, 8월에는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기획공연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8월 22일)가 열린다. 9월, 미래 국악도들을 위한 제45회 청소년 협연의 밤(9월 25일)에 이어 10월에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국의 美&樂 페스티벌'(10월 30일~31일, 203회 정기)이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진다.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와 '한국의 美&樂 페스티벌'은 매년 해를 거듭하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특화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월에는 베트남의 단보우, 일본의 사쿠하치, 북한의 대금, 중국의 얼후 등 각국의 민속악기를 만날 수 있는 '세계민속음악의 밤'(11월 26일~27일)이 열리며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12월 24일, 제204회 정기)에서는 소리와 관현악, 합창과 관현악, 성악가가 부르는 신가악 등 성악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한국의 노래'로 2019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준다.

2019년 첫 무대는 3월 14일 열리는 제174회 정기연주회로,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의 연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지난 2017년 순수한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인의 사랑'(166회 정기)에 이은 슈만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특히 화이트데이를 맞아 공연장을 찾은 연인들에게 사랑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9월에는 슈만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슈만의 부인이자 당대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클라라 슈만의 이야기를 합창으로 들려준다. '클라라 슈만의 일기'(9월 26일, 176회 정기)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라가 남긴 일기장을 토대로 그들의 사랑과 작품을 노래로 이야기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음악극 '아주 특별한 선물'(5월 24일~25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아주 특별한 선물'은 자가 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소아 당뇨)으로 고통받는 한 어린이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배려 속에서 다시

부산시립예술단



희망을 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극으로, 특히 실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작곡가 김미선과 작가 이수가 극의 작곡과 대본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6월 ‘레퀴엠’을 무대에 올렸던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2번으로 알려진 ‘찬미의 노래(Lobgesang, 6월 28일)’를 들려준다. ‘찬미의 노래’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40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3개의 교향곡 악장과 9개의 독창 및 합창 악장으로 구성된 대작이다. 청중들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매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요음악회’는 올해 7월 25일 펼쳐진다. 지난 가요계를 대표했던 가수들을 중심으로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로, 올해는 가수 김동률, 이적의 프로젝트 그룹인 ‘카니발’의 노래로 꾸며진다. 또, 부산시립합창단은 지난해 대극장 좌석을 매진시키는 등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크로스오버 콘서트 ‘The Phantom Chorus’와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에 이어 올해는 ‘세계4대 뮤지컬 갈라콘서트’(11월 19일)로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부산합창제’(10월 21일~24일)와 ‘2019 송년음악회’(12월 19일~20일)는 올해도 계속된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성, 대중성, 지역성 담은
수준높은 창작무대

전통춤의 전승과 보존, 창작무용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난 일년간 무대에서 뜨거운 땀을 흘렸던 부산시립무용단은 올 한 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성, 대중성, 지역성 등을 작품에 폭넓게 담아낼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지난해 전통과 현대, 같음과 다름의 미학을 이질적이거나 경이로운 춤 미학으로 상승시킨 ‘댄스 유토피아(祭)’,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생사관을 제의적 형식 속에 응축시킨 ‘업경대’ 등 정기공연 두 작품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업경대’는 아시아와 부산, 인근 지역의 객원 무용수들이 부산시립무용단과 협업하면서 지역 춤 창작과 예술성, 대중화, 대표 레퍼토리의 확보, 그리고 부산시립무용단 브랜드 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 두차례 있는 정기공연에서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수준 높은 창작무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봄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춤의 회화전’(5월 30-31일)은 각국 전통춤의 미학과 역사관을 탐미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국 전통춤이 가진 우아한 선과 기품, 그리고 중국과 일본 전통춤이 가진 기와 예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가을 정기공연에서는 관혼상제의 삶을 현대적인 춤 메소드와 극장주의적 한타지로 극대화시킨 창작무용 ‘결혼식과 장례식’(11월 28일-29일)을 선보인다. 특별공연으로는 우리춤을 연마해 온 단원들이 평소 갈고닦은 전통 춤사위를 선보이는 ‘우리춤 산책’(3월 7일~8일)과 단원들이 참여하는 안무가 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8월 22일~23일)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몸으로 쓰는 시’는 단원들의 창작 작품을 비롯해 아시아 안무가 초청무대,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면서 단원들의 창작 열정을 북돋울 예정이다. 이밖에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춤추는 동화’(3월 25일~4월 5일), 매년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출판 ‘여름마당춤축제’(7월 25일~26일)는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일반 관객들에게 친숙한 영화, 드라마 OST, 대중가요, 민요와 접목된 레퍼토리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부산시립극단

실험극에서 뮤지컬까지 다채로운 무대 선사

지난 한 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던 부산시립극단은 올해는 그동안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2019년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맞았다.



부산시립극단은 올 한해 3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여온 부산시립극단은 올해도 실험극에서부터 정통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우선 4월 첫 정기공연에서는 일본의 유명 연출가 겸 극작가 오타 쇼고의 ‘물의 정거장’(4월 8일~13일, 64회 정기)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 김세일의 객원연출로 무대에 올린다. 오타 쇼고는 생활이 묻어나는 신체 움직임과 대사 없는 침묵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일군 예술가로,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물의 정거장’은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대사가 없는 무연극이다. 7월에는 러시아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안톤 체홉의 4대 희곡 중 하나인 ‘세자매’(7월 18일~20일)를 무대에 올린다. 러시아 국립종합 예술대학원에서 수학한 연출가 최성우의 연출로 선보이는 ‘세자매’는 러시아 소도시에 사는 아름다운 세 자매와 그 주변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꿈과 이상, 사랑과 배신, 좌절을 그리고 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품은 광종필 예술감독이 연출하는 창작뮤지컬 ‘영도사랑’(12월 12일~14일)으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창작 뮤지컬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이어 부산과 부산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5월 3일~4일)은 올해도 계속된다.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맞춤형 공연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까지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 평소 거리가 멀어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들었던 타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올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현재 60여명의 중·고·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매년 3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 순회연주회를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은 지난 한해도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최상의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2018년 김봉미 수석지휘자가 임기가 완료되면서 잠시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신임 수장이 선임 되는대로 재정비 후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로 창단 46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국내 최고의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해 외교부 초청으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무대에 참가,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탈린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서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건륜 수석지휘자의 공석에 따라 올해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한 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JAN	FEB	MAR	APR	MAY	
문화회관	대극장	기획 1/12(토)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 1/26(토)-1/27(일) 어린이뮤지컬 '미니특공대'		3/14(목) 금난새 콘서트 I 3/16(토)-3/17(일) 어린이뮤지컬 '핑크퐁' 3/22(금)-3/24(일) 뮤지컬 '엘리자벳' 3/30(토) 노자와 베토벤 I	4월중 뮤지컬(미정)	5월중 조수미 독창회	
		예술단 1/18(금) 교향 2019 신년음악회 (547회 정기)	2/15(금) 교향(548회 정기)	3/7(목) 교향(549회 정기) 3/9(토) 소년소녀(154회 정기) 3/26(화) 국악(200회 정기) 3/28(목) 청소년교향(60회 정기)	4/16(화) 교향(550회 정기) 4/26(금) 국악(201회 정기, 부산문화가 있는 날)	5/17(금) 교향(551회 정기) 5/24(금)-25(토) 합창(특별) 5/30(목)-5/31(금) 무용(80회 정기, 부산문화가 있는 날)	
	소극장	기획 1/10(목)-1/13(일)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율리' 1/17(목)-1/20(일)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우리엄마' 1/25(금)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부산문화가 있는 날)	2/22(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3/29(금) 교향(특별, 부산문화가 있는 날)	4/24(수) 마티네 콘서트 I	5/22(수) 마티네 콘서트 II	
		예술단 1/24(목) 국악 2019 신년음악회 (특별)		3/14(목) 합창(174회 정기)		5/11(토) 소년소녀(특별) 5/28(화) 청소년교향 2019 솔로리스트들의 축제(특별)	
	챔버홀					5/3(금)-5/4(토) 극단 어린이연극체험 페스티벌	
	사랑채	1/22(화)-3/22(금) 꼬마개비의 신나는 여행	1/22(화)-3/22(금) 꼬마개비의 신나는 여행	1/22(화)-3/22(금) 꼬마개비의 신나는 여행	4/9(화)-6/16(일) 아빠 함께해요	4/9(화)-6/16(일) 아빠 함께해요 ※5/3(금)-5/4(토) 극단 어린이연극체험 페스티벌	
	전시실	12/24(월)-3/3(일) 가루야 가루야	12/24(월)-3/3(일) 가루야 가루야	12/24(월)-3/3(일) 가루야 가루야			
	시민회관	대극장	1/23(수) 2019 새해음악회	2/9(토)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	3/2(토) 아동학대예방 부산콘서트 '내 작은 이야기'	4/5(금) 금난새와 함께하는 부산의 음악 꿈나무들	5/1(수)-5/2(목) 현대서커스 backbone
		소극장	1/25(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싱 스트리트'	2/22(금) 박지하 생활독주회	3/7(목)-3/8(금) 무용 2019 우리출산책 3/25(월)-4/5(금) 무용 2019 춤추는 동화(특별)	3/25(월)-4/5(금) 무용 2019 춤추는 동화(특별) 4/8(월)-4/13(토) 극단(64회 정기)	5/31(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슈퍼메드3' 5월중 부산월드뮤직 페스타
		아외마당				4월, 5월중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	4월, 5월중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
전시실			2/15(금)-4/30(화) KT&G 공동기획 '노만 파킨스: 스타일은 영원하다' 2/29(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	2/15(금)-4/30(화) KT&G 공동기획 '노만 파킨스: 스타일은 영원하다' 3/29(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	2/15(금)-4/30(화) KT&G 공동기획 '노만 파킨스: 스타일은 영원하다' 4/26(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		
순회·해외공연		1/17(목) 교향 2019 예올마루 신년 음악회(여수 예루마루)			4/18(목) 교향 2019 교향악축제 (서울 예술의전당)		

JUN	JUL	AUG	SEP	OCT	NOV	DEC
6/5(수) 금난새 콘서트 II 6/26(수) 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7/26(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8/28(수) 마티네 웰빙콘서트 8/30(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9/19(목) 금난새 콘서트 III 9/27(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10/25(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11/29(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12/12(목) 금난새 콘서트 IV 12/27(금) 부산문화가 있는 날
6/14(금) 교향(552회 정기) 6/28(금) 합창(175회 정기, 부산문화 가 있는 날) 6/29(토) 청소년교향(특별)	7/5(금) 교향(553회 정기) 7/25(목) 합창(특별) 7/25(목)-7/26(금) 무용 2019 여름마당축제 (특별)	8/22(목) 국악필방수길이사원한 콘서트(특별)	9/20(금) 청소년교향(61회 정기) 9/21(토) 소년소녀 2019 부산청소년 합창제(예선) 9/27(금) 교향(554회 정기)	10/21(월)-24(목) 합창 2019 부산합창제 (특별) 10/25(금) 교향(555회 정기) 10/30(수)-10/31(목) 국악 한국의 미&락 페스티벌(203회 정기)	11/9(토) 소년소녀 제31회 청소년합창제 11/19(화) 합창(특별) 11/22(금) 교향(556회 정기) 11/28(목)-11/29(금) 무용(81회 정기)	12/9(월)-12/10(화) 무용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2/11(수) 무용 사랑나눔 송년공연 12/17(화) 청소년교향 2019 송년음악회(62회 정기) 12/19(목)-20(금) 2019 송년음악회(교향 557회 정기, 합창 177회 정기) 12/24(화) 국악(204회 정기)
6/22(토) 노자와 베토벤 II		8/28(수) 마티네 콘서트 III	9/28(토) 노자와 베토벤 III	10/2(수) 마티네 콘서트 IV		12/28(토) 노자와 베토벤 IV
6/5(수) 국악(202회 정기)	7/18(목)-7/20(토) 극단(65회 정기)	8/13(화)-14(수) 교향 청소년음악회(특별) 8/22(목)-8/23(금) 무용 2019 안무가양성 프로젝트(특별)	9/7(토) 소년소녀(155회 정기) 9/18(수) 교향 제75회 청소년합주곡의 밤(특별) 9/25(수) 국악 제45회 청소년협연의 밤(특별) 9/26(목) 합창(176회 정기)	10/25(금) 소년소녀(특별)	11/26(화)-11/27(수) 국악(204회 정기)	12/12(목)-12/14(토) 극단(66회 정기) 12/21(토) 소년소녀(151회 정기)
	7/4(목)-7/5(금) 국악 전통음악의 밤(특별)			10/26(토)-27(일) 청소년교향 유망주 음악회		
4/9(화)-6/16(일) 아빠 함께해요	7/2(화)-9/8(일) 도와줘요 안전맨	7/2(화)-9/8(일) 도와줘요 안전맨	7/2(화)-9/8(일) 도와줘요 안전맨			
6월~12월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7월중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 예술축제	8/30(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9/27(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9월중 조선의 아이들 '이희문'	10/25(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11/16(토) 제6회 부산직장인경연대회 11/29(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12/27(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9월, 10월중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	9월, 10월중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		
6월, 7월중 반려동물전 6/28(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	6월, 7월중 반려동물전 7/31(금)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					
6/20(목) 교향 성남아트센터2019 마티네콘서트(성남아트센터)	7월중 극단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테너의 하이C, 그 공포에서 환희로 바뀌는 ‘라보엠’의 로돌포 이야기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라보엠’

프랑스 파리의 예술가 로돌포, 마르첼로, 소나르, 끌리네는 절음을 무기로, 그러나 가난한 나날을 보낸다. 미미와 로돌포는 촛불처럼 사랑을 키우고, 헤어졌던 무젯타와 마르첼로도 재회한다. 각각 서로의 상황으로-생활고, 성격-이별을 했으나 미미가 병에 걸려 죽기 전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촛불이 꺼지듯 그녀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8)는 고음의 끝판왕이다. 특히 두 옥타브 도음은 역사 이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하이C의 제왕’으로서 평생 그 아름다운 고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남겼다. 사실 인간이 위 A음까지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위의 음들을 정복한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경이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오페라 성악계에서는 인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흔히 농담을 한다. 첫 번째가 여성, 두 번째가 남성, 세 번째가 바로 남성 고음을 내는 테너 ㅎㅎ, 이런 얘기는 그만큼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다.

2018년 늦여름, 오페라 ‘라보엠’의 신인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에 로돌포 역에 응시한 한 젊은 테너를 만나게 된다.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작업을 많이, 여러 사람들과 하게 되는데 오디션 심사에서 대부분 한다리, 두다리, 세다리 건너면 대부분 이름을 들어본 선수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

서 어떤 때는 잘 아는 지인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하지만 계급장을 내려놓고 하는 공정 경쟁이므로 가장 실력자를 뽑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 젊은 인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날라온, 처음 보는 그는 흰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지닌 성악가였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 ‘180cm, 73kg’을 기입한 재미있는 프로필이 인상적이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유럽에서는 신체 조건을 기입하라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적어 냈다고 했다. 사실 요즘은 상반신 사진뿐 아니라 전신사진으로 오디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성악가들이 몸매 관리에 아우성이다. 아무튼 그 테너가 노래할 때 ‘그대의 찬손(Che gelida manina)’의 하이C를 잘 내기를 두손모아 바랐다. 노래가 시작되고, 클라이맥스가 되어 그 소리를 내는데, 잘 해냈다. 휴우, 다행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지망자가 한곡을 부르고 나면 다른 한곡을 듣게 되는데, 오페라 ‘토스카’의 카바라도시의 아리아 ‘오묘한 조화(Recondita Armonia)’까지 잘 해내야만 한다. 그에게 요청을 했고, 물 한모금 안마시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노래까지 잘 불렀다. 심사위원들로부터 낙점을 받았고, 캐스팅되었다.

그는 다시 독일에 갔다가 공연 몇 주전 귀국하여 ‘라보엠’ 연습에 돌입해 음악코치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후 연출인 나와의 만남, 즉 액팅 연습을 하게 됐다. 예전 오페라 작품을 올릴 때는 악보 읽는 초기 단계부터 습득 및 음악 연습기간이 상당히 길어 어떤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은 작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확인 및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리허설을 포함 짧게는 2주에서 3주, 길어도 한 달안에 오페라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 기간 중에 중도 포기 또는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라보엠'은 테너에게 하이C뿐 아니라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처럼 1막부터 4막 끝날 때까지 실재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머슴 캐릭터이다. 시인이니까 글도 써야하고, 가난하고 추운 집에 자신의 원고로 난로도 피워야 하고, 쇼나르가 구해온 음식에 테이블 셋팅도 하고, 집세 받으러 온 베노아에게 정신없이 술 마시게 하고, 가장 중요한 미미도 꼬셔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현기증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미미를 깨우고, 와인 한잔 따르고, 촛불도 붙이고, 잃어버린 열쇠도 찾고 숨기고, 아! 숨차다... 이런 상태에서 언어 유희의 극치인 그 유명한 아리아까지 부르는데 그 노래에서 하이C를 뽑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2중창까지 부르고 나야 겨우 1막이 끝난다. Mamma mia!!!

연출로서도 1막부터 4막까지 '아이다'보다 더 복잡한 액팅라인으로 한순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이나믹한 장면들의 연속이다. 특히 2막의 파리 모뤼스 카페 장면은 그야말로 정신없는 콘티의 연속이다. 캐스트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는 물론 합창단 50명의 동선과 상황들이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어린이 합창 20명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줘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극의 몰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는 어려운 포인트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합창

단도 연기를 100%에서 30%까지 강약조절을 교묘하게 해야만 한다. 이러한 2막의 모습은 '라보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전국에서 '라보엠'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각 매체에서는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연출가는 연출가대로, 성악가는 성악가대로, 각 단체의 팬들은 팬들대로 경쟁관계를 조성하여 본의아니게 프로덕션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나는 이러한 공연계를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경쟁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디어들이 그러한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을 내 자신에 대한 긴장의 소스라 생각하고 즐겁게 작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 테너님은 고국에 들어와 서는 첫 데뷔 작품인데다 주인공으로서 중압감이 많다보니 연습실에서 내내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다.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진행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자 나는 그에게 한동안 참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연주자는 사람들 앞에서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으면 그 순간 자신의 기량에서 퇴보한다고. 내 말을 곰곰이 들은 그는 강한 의지로 나의 두눈을 보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는 '쉽지 않을걸?'하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변하게 시작했다. 오페라 가수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제너럴 리허설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에 사실은 속으로 조금 염려했지만, 나와 관계자들은 내색하지 않았다. 공연 당일인 12월 7일, 그는 1막 로돌포의 아리아 '그대의 찬손'의 하이C를 당당하게 세상에 발산했다. 그 기세로 4막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미미를 외치는 호소력있는 모습



으로 성공적으로 귀국 데뷔무대를 마쳤다. 젊고 신선한 테너의 출현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그의 모습을 주목해보며, 새로운 인물을 찾고 기회를 주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당신은 고음을 낼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너무나 쉽게 해서 별 감흥이 없죠?'라는 질문에 '나는 평생 고음을 내기 전 그 공포에서 한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행의 길이였을까... 테너는 고음이고, 고음은 공포와 긴장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그 모습에 우리는 열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공포에 경의를 표한다.

실용적인 노선의 영국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떨어진 섬나라지만 대륙과 가까운 동남쪽의 해안선이 낮고 완만해 예전부터 다양한 민족의 침략과 유입이 있었다. 섬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한정적이니 내부에서도 전쟁도 빈번했는데 결국 좁은 섬에서 다양한 민족이 공존해야하며 외부의 침략도 신경써야했기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을 수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1215년 왕과 귀족들이 권력을 나눈 마그나 카르타

L O N D O N

모두를 위해 만든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The National Gallery, London)

글·사진 김성민 (주)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Magna Carta)부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가들과 노동자, 지금은 세습되는 왕과 민주주의가 융합된 입헌군주제와 같이 영국은 태생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잘 찾았던 것 같다. 물론 최근 브렉시트(Brexit) 문제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이번 사건도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리라 기대한다.

모두의 미술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특권처럼 누리는 것을 일반 시민들(중산층)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문화, 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클래식 음악 역시 이 시기에 대중화, 상업화가 이루어지며 대규모 극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독일 하노버 공국에서 일하던 헨델이 런던으로 이주했고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사람들이 런던까지 갔던 이유는 그만큼 런던이라는 도시가 클래식의 대중화로 인해 음악가들에게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 대부분의 초기 미술관들은 철저한 입장제한이 있었는데 격식에 맞는 복장부터 감상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까지 쳤다고 한다. 하지만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는 처음부터 그런 제한이 전혀 없었으며 지금까지 무료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어린이들에게 공개된 미술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고전 박물관들이 왕이나 권력자들의 소장품들이 중심을 이루지만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멋진 미술관을 꿈꾸던 개인 수집가들의 작품들이 주축이 되었다. 원래 내셔널 갤러리의 위치는 귀족들의 거리라고 하는 팔 몰(Pall Mall)의 한 저택에 있었다고 한다. 미술관의 설립연도는 1824년 5월 10일인데 실제 1823년부터 미술관 역할을 했었다고 하며 리버풀의 백작이었던 로버트 젠킨슨의 정책과 개인 기증자들에 의해 꾸준히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가 지금의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으로 미술관의 위치가 이동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 재위 시절이었는데 귀족들의 거리(Pall Mall)에서 시민 모두의 광장(Trafalgar Square)으로 미술관이 이동한 것은 내셔널 갤러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미술관 역시 수많은 명작들을



1 영국의 상징 이중버스

2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



3

3 북유럽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대표화가 안 판 에이크

4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소장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술관의 취지에 맞게) 그 가운데 일반 시민을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초상화

안 판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는 플랑드르 지역 르네상스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특히 후대 예술가이자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을 썼던 이탈리아의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는 그를 유화기법을 만든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실제 물감(안료)에 기름을 섞는 유화기법은 이미 그 이전시대였던 중세 때부터 사용되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 판 에이크는 유화 기법의 창조자라기보다 유화기법을 확립하고 그림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은 이탈리아 중부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고향으로 유명한 루카라는 곳에서 태어나 플랑드르 지역에서 상인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주인공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표정은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왼쪽 창문과 아래쪽에 있는 노란 과일들은 당시 북유럽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던

지중해산 오렌지인데 그의 국적과 개인의 부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을 벗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신을 만날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신성한 행위를 할 때 종종 하는 행동이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이 작품을 결혼식의 모습으로 해석하지만 영향력 있는 상인이 자신의 결혼을 성당이나 공공의 장소가 아닌 개인 방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간혹 신혼 부르주아들이 비밀스러운 결혼을 했었다고는 한다.) 또한 당시 신랑신부는 오른손을 서로 맞잡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 그림 속 남자의 오른손이 여자의 오른손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이 그림은 결혼하기 전의 두 커플의 약혼식과 같은 기념 초상화 정도로 추정하거나 결혼식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커플의 부부 초상화 정도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그림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림 가운데 벽에 붙어있는 작은 거울이다. 자세히 보면 거울에 비친 아르놀피니 커플의 뒷모습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자신(푸른색



4



5



6

5 작가의 서명과 함께 그려진 거울. 작은 거울을 통해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

6 미술관 내부 모습

옷)과 조수(붉은색 옷)의 모습이 보인다. 얀 판 에이크는 물감이 천천히 마르는 유화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미세한 부분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 다른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그림 속 거울을 활용한 작품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으니 아마 그 시대에 유행했었던 기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림 속 거울의 모습은 이후 같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권에 있었던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의 작품 속에서도 재현된다.(예술에의 초대 2018

년 8월호 프라도 미술관 참고)

아르놀피니 커플의 초상화가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르네상스라는 시대정신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라는 문화운동의 핵심은 결국 인간이 중심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재현하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자연을 대우주로 보았고 인간은 소우주로 보았다고 한다. 혹시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독자(讀者)께서 능적으로 대우주와 소우주의 이야기를 보고 대우주는 크기 때문에 소우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독자께서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정신과 상당히 멀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의 기본 가치는 다수(대우주)의 목적을 위한 획일화나 크기와 가치의 정비레가 아니라 다양한 개인(소우주)의 존엄과 존중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은 개인의 가치도 다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대우주와 소우주를 아르놀피니 그림으로 대입해본다면 전체 그림을 대우주, 그림 속 거울을 소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은 거울(소우주)을 보면 그림(대우주)에서 찾을 수 없었던 화가들과 창문 밖 풍경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소우주는 대우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가치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정신을 잘 대변해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도시들의 특징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도시(대우주)들의 공통점은 위대한 인물(소우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던 도시들은 다양한 개인들을 존중했고 그 개인들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간혹 다수(대우주)를 위해 개인(소우주)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운데 어떤 도시가 되길 원하는지 묻고 싶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했던 아테네는 수많은 인물들이 탄생되었고 그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누리며 민주주의와 문화, 예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반대로 다수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켰던 스파르타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기억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영화 '300'으로만 기억될 뿐이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행복한 소우주들이 더 많아지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궁극적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운 대우주가 되길 바란다.

테마가 있는 여행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로 떠난 겨울여행

2018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둔 지난 1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2월의 테마여행지는 자연과 교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특히 이번 테마여행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2018 에코투어'로,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투어로 진행됐다.

12월 들어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겨울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2018년 마지막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목정아, 김선영, 김초롱, 최한솔, 이현아 씨로 구성된 현악5중주단이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출근시간도 지나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려 첫 방문지인 부산현대미술관에 도착했다. 을숙도에 새롭게 동지를 틔운 부산현대미술관은 올해 6월 개관한,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미술관으로 '자연, 뉴미디어, 인간을 주제로 전통적인 전시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의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건물 완공 당시 대형마트 같다는 지적이 빗발칠 정도로 삭막했던 미술관 외관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이 콘크리트 벽면에 175개 종 식물 4만 4천여 포트를 심는 '수직정원을 설치하면서 지금은 그 독특한 외관으로 을숙도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현대미술관이 을숙도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위치한 만큼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은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1-2-3 부산미술대전이 열리고 있는 부산현대미술관

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현악5중주의 로비콘서트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자 대형 벽면 설치작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독일의 유명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으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가 재해석한 알파벳 패턴이 나열된 철학적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또 1층 전시실 반대편에는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상설전시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 건물 속 또 하나의 건축물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전시가 끝난 이 곳은 현재 카페로도 운영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작품 속에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테마여행이 있던 지난 12월 14일,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마침 부산 최대 규모의 미술 공모전인 부산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바쁜 일상에 벗어나 모처럼 미술관을 찾은 회원들은 전시회장을 돌며 예술가들의 땀과 열정이 서린 예술작품을 관람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전시관람이 끝난 후에는 1층 로비에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현악5중주단의 로비콘서트가 열렸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물관 내부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에 정기회원들뿐 아니라 지나가던 관람객과 근무하던 미술관 직원들까지 연주 하나 놓칠세라 숨죽이며 경청한다. 마지막 앵콜곡까지 아낌없는 박수로

테마가 있는 여행



5-6 을숙도 생태공원에 자리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7-8 낙동강 하구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미산 전망대

연주회를 즐긴 회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미술관을 나섰다.

본격적인 오후 에코투어에 앞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따뜻하게 차려진 가정식 백반으로 맛있게 점심을 마친 후 을숙도 생태공원에 자리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로 달려갔다. 에코센터에 도착한 후 기다리고 있던 생태해설사와 함께 본격적인 탐방에 나섰다. 첫 방문지인 에코센터는 생태복원지인 을숙도철새공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하고 생태에 대한 전시, 교육, 체험학습공간을 시민에게 제공,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낙동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개관했다.

“을숙도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으로 수생식물, 물고기, 조개, 곤충 등이 풍부해 매년 약 167종 13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들의 고향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210호인 큰고니의 천국으로, 이밖에 고니, 개리,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이 곳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낙동강 하구의 형성과정과 지형변화, 생태계 현황, 철새의 비행경로와 서식환경, 국내의 습지현황 등을 알기쉽게 소개하고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을숙도를 소개하는 영상 관람까지 마친 정기회원들은 2층 전망실 망원경을 통해 센터 앞 습지에 등지를 튼 겨울철새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12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아미산전망대. 낙동강 하구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미산전망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망대 중 한 곳으로, 낙동강 하구 모래섬과 철새,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모래섬인 땡금머리, 백합등, 도요등, 장자도, 신자도가 전망대 너머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을숙도하구를 바라보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12월, 자연과 문화가 함께했던 을숙도여행은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처럼 오랫동안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이다.

2.8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주남저수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창오리 등 수만 마리가 월동하면서 현재는 람사르협약의 등록습지 기준에 상회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로 떠나는 겨울여행.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9:30 주남저수지 도착,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탐방
- 12:30 중식
- 14:00 빗돌배기마을 농촌체험
-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1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김민선(남구 분포로) | 서은순(남구 진남로) | 진영규(북구 대천천길) |
| 김진경(해운대구 반여로) | 손명찬(수영구 감포로) | 채문식(남구 석포로) |
| 김희일(북구 화명신도시로) | 임봉란(수영구 광남로) | |
| 박정식(남구 황령대로) | 정정순(남구 분포로) | |

기존 회원

- | | | |
|---------------|----------------|---------------|
| 김영기(금정구 금강로) | 오일석(북구 화명신도시로) | 이정희(동래구 총렬대로) |
| 김은경(남구 유엔로) | 윤희택(해운대구 달맞이길) | 홍기표(김해시 삼안로) |
| 석종명(남구 진남로) | 이경현(해운대구 해운대로) | |
| 성은경(해운대 달맞이길) | 이두희(남구 진남로) |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미술관에 간 윌리엄마



영국 출신의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1976년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첫 번째 책인 '거울속으로'를 통해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후 1983년 그가 직접 쓰고 그린 '고릴라'와 1992년 '동물원'으로 영국의 권위있는 그림책 상인 '케이터 그린어웨이 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다.

특히 군더더기 없는 글과 그림 속에 함축한 풍자로 유명한 그의 작품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그림과 건조하면서도 블랙유머가 넘치는 섬세한 글이 특징으로, 대표작으로는 '몽상가 윌리', '미술관에 간 윌리' 등 조끼 입은 귀여운 침팬지 윌리가 등장하는 시리즈와 '동물원', '고릴라', '돼지책', '터널',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등이 있다.

'음악으로 읽는 그림책'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미술관에 간 윌리'는 공연장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음악수업으로, 어린이들의 키보다 더 큰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두 분의 음악선생님이 노래로 대화하며 책장을 넘기면서 음악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등 세계적인 명화에 윌리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그림을 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윌리 우리엄마

겨울방학을 맞아 세계적인 그림책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음악교육극으로 제작한 '미술관에 간 윌리', '우리엄마'가 부산을 찾는다.

명해주면서 세계적인 명화를 접하기 힘들었던 어린이들에게 무대 위의 실물보다 더 큰 명화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해준다. 생각이 커지는 어린이공연 '미술관에 간 윌리'는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20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이 담긴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의 명작에 따뜻한 노래와 신기한 악기연주, 무용과 어우러져 특

별한 이야기를 선사하는 가족음악극 '우리엄마'는 엄마의 목소리로 들던 그림책을 음악과 춤, 악기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글자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책읽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아직은 어려운 클래식음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 발달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이의 정서 교류에 도움을 준다. 클래식 가족음악극 '우리엄마'는 201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예술유통활성화사업 국내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시 1월 10일(목)-13일(일), 17일(목)-20일(일) 목-금요일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프리뷰



지휘자 최수열



바이올린 신지아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보다 깊어진 연주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당당히 자리잡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립적인 관현악곡으로 즐겨 연주되는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푸치니 '교향적 기상

곡'과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으로 2019년 기해년의 문을 열어준다.

지난 한 해 젊은 패기와 탁월한 실력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던 상임지휘자 최수열은 2017년 지휘자 취임과 동시에 국내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에 걸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에 도전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가진 능력과 숨겨진 매력을 알리며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첫 곡은 작곡가 마스카니를 일약 세계적인 작곡가 대열에 오르게 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으로, 종교적 분위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멜로디를 지니고 있어 독립적인 관현악곡으로 즐겨 연주되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러시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폴트 아우어가 '기술상 연주가 불가능한 곡'이라 단정할만큼 바이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7회 정기연주회

2019 신년음악회

—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9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다.

린 독주의 눈부신 기교와 차이콥스키 특유의 애수에 찬 선율이 독창적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 우승과 함께 세계적인 연주자로 주목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2004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 2005 티보 바가 국제콩쿠르 3위,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3위, 2006 하노버 국제음악콩쿠르 2위, 2007 차이콥스키 국제음악콩쿠르 5위에 이어 롱-티보 국제음악콩쿠르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세계무대에서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2015년부터는 KBS 1TV '더 콘서트' MC로 활동해오고 있다. 2부 첫 곡으로는 작곡가 푸치니가 1883년 밀라노음악원 졸업작품으로 작곡한 '교향적 기상곡'을 들려준다. 오페라 '라보엠'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 곡은 과감하면서도 신선한 화음의 연결, 목관악기의 세련되면서도 효과적인 활용법, 간간이 터져 나오는 금관과 타악기의 웅장한 음향으로 훗날 대가로 성장하는 푸치니의 작품세계를 미리 엿볼 수 있다.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은 이탈리아에서 받은 인상을 회상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민요와 춤곡들을 사용하여 변화와 색채가 풍부하다.

2019 신년음악회

일시 1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2019 새해음악회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쾌하고 밝은 트럼펫 연주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가 돋보이는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중 '피날레'를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요제프 슈트라우스 '근심없이!' 등 폴카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브람스 '헝가리 무곡', 그리고 이탈리아의 밝은 태양과 열정이 느껴지는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으로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다.

지난 1962년 창단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을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현재 제11대 상임지휘자인 최수열의 도전적인 기획력과 젊은 리더십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꾀하고 있다.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은 2014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3년간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롯데콘서트홀의 기획시리즈 '최수열의 고전두시'를 이끌고 있다.

'2019 새해음악회'의 첫 곡은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중 '피날레'. '윌리엄 텔' 서곡은 통상의 서곡과는 달리 4개 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2019 새해음악회

—
'2018 송년음악회'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했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1월 23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9 새해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선사한다.

분으로 된 모음곡으로, 그 중 피날레는 현재까지도 드라마나 영화의 테마곡이나 광고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폴카곡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는 제목 그대로 천둥과 번개를 폴카의 춤곡 리듬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빠른 템포에 심벌즈의 소리와 큰북의 힘찬 울림이 천둥과 번개, 소나기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동생인 요제프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폴카 '근심없이!'는 대단히 밝고 활기찬 곡으로, 빠르게 연주하는 과정에서 연

주자들이 직접 크게 내는 웃음소리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어지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은 전통적인 체코의 민속 춤곡의 리듬 패턴과 성격을 그대로 살리면서, 작곡가 특유의 뛰어난 선율 감각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드보르작이 '슬라브 무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헝가리에 정착한 집시의 민속 선율을 차용한 곡으로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 마지막 곡인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은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느낀 경치, 풍경 등을 담은 작품으로, 러시아 관현악곡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일시 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프리뷰

己亥年 新年음악회



지휘 최수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신모듬'으로 새해를 맞는 기쁨을 신명넘치는 무대로 선사한다.

2019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모듬'은 지난 1986년 당시 중앙국악관현악단 지휘자였던 작곡가 박범훈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최초의 사물놀이 협주곡으로, 창작국악의 대중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 보

인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모듬'은 원래 경기 남부지역의 무속음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을 모은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이름이었지만, 이 곡에서는 '신명난다'라는 뜻으로, 민속악장단의 역동성에 바탕을 두면서 곡의 특징이 태평소와 사물놀이의 신명난 가락에 잘 담겨 있다.

'신모듬'은 모두 세 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시간만 45분에 이르는 대곡이다. 첫째 거리 '풍장'은 한국의 농촌에서 연주되고 있는 농악의 장단을 인용했으며, 처음 나발이 울린 후 태평소가 주제 선율을 연주하면 관현악이 받고, 이어 사물이 호남 우도농악을 연주한다. 둘째거리는 '기원'으로 농사 일과 가정의 평화, 국태민안 등을 비는 의미로 작곡되었다. 사물놀이의 무속적인 리듬으로 시작하여 구음으로 노래되다가 다시 가볍고 경쾌한 사물놀이 독주로 이어진다. 신명나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己亥年 新年음악회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己亥年 新年음악회'가 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치고 즐기는 모습을 그린 셋째 거리 '놀이'에서는 태평소와 관현악이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 사물이 자진모리와 휘모리로 힘있게 몰아간다. 전체적인 형식은 농악을 따르고 있으며 장단을 중심으로 연주가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연희팀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완벽한 호흡을 통해 신년

음악에 걸맞는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연희팀은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부수석인 전성호(장구)를 중심으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최재근(쟁과리), 금동훈(징), 한용섭(북)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전학수(장구), 부수석 최오성(북), 단원 이주현(쟁과리), 박재현(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사물놀이의 흥과 신명을 알려고 있다.

지난 한 해 새로운 연주,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우리 국악의 맛과 신명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일시 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 문화가 있는 날’은 부산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옮긴 부산판 문화가 있는 날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 혜택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등 직접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의 날을 통해 문화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1월 25일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을 시작으로 2월 22일 ‘Bulgarian Voces Berlin

& Indonesia Youth Choir’, 3월 2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4월 2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5월 31일 부산시립무용단, 6월 28일 부산시립합창단 등 2019년 ‘부산 문화가 있는 날’ 상반기 일정을 확정짓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올해 ‘부산 문화가 있는 날’ 첫 공연인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지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초청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후 명화와 클래식이 함께 공존하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으로 매년 매진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주제가 되는 화가의 그림을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한 클래식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무대로, 그동안 쇠라의 점묘법을 시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미켈란젤로 VS 다빈치

그림을 보며 클래식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보는 예술 융합프로그램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이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는다.

작으로 마네, 마티스, 고희, 김홍도, 클림트, 샤갈, 다빈치 편을 꾸준히 제작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문화회관에서 ‘고흐와 고갱’, ‘김홍도와 신윤복’을 주제로 공연을 가지면서 부산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클래식 큐레이터(클래식 해설자)의 설명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음악과 그림 작품들을 감상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숙현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암흑기였던 중세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두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세계와 그들의 열정, 갈등을 주제로 명화 속 클래식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미리 예매시 4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 VS 다빈치

일시 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프리뷰



‘미니특공대X’는 지난 2014년 EBS 교육방송을 통해 ‘최강전사 미니특공대’로 첫 선을 보인 후 최고 시청률 7.5%와 어린이 채널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마법의 버스 타요’, ‘뽀로로 시리즈’, ‘핑크퐁과 상어나라’, ‘핑크퐁랜드’ 등 최고의 어린이 뮤지컬을 제작해 유진엠플러스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동명의 뮤지컬로 시즌2까지 제작했으며, 시즌 2는 1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관람하는 등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특공대 X’는 전작보다 한층 강해진 미니특공대 X와 지구정복을 꿈꾸는 외계인 제노스 군단의 한판 대결을 그리고 있다.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 제노스군단은 지구의 불행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점점 막강한 공격력을 갖게 되고 우주해적 단단단과 공룡외계인 빅 다이노를 앞세워 지구를 지키는 최강전사 미니특공대X와의 전투를 시작한다. 놀라운 스피드 ‘볼트’, 최고의 점프 ‘재미’, 최강 방어 ‘루시’, 막강 파워 ‘맥스’가 위기에 빠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출동하고, TV 생중계로 전투를 지켜보는 블루시티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미니특공대X는 빅 다이노에게 밀려 전에 없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겨울방학을 맞아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들의
히어로 ‘미니특공대X’의 대활약을 그린
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이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만다. 패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볼트와 친구들이 출동을 망설이는 사이 단단단은 병원을 습격해 블루시티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불행에너지를 마구 흡수한다. 과연 미니특공대X는 단단단과 빅 다이노를 물리치고 위험에 처한 블루시티를 구할 수 있을까?

전작인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의 연출을 맡았던 연출가 권정욱과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마법의 버스 타요’, ‘신비아파트’의 전상현 음악감독, 김홍기 작가, 이태모 무술감독 등 최강의 제작진이 다시 뭉쳐 최강

의 액션 뮤지컬로 탄생시킨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은 높이 4M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4단합체 로봇의 전투장면을 비롯해 TV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대형 LED 화면과 시선을 사로잡는 조명·음향·특수효과 등을 통해 어린이들을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특히 완벽한 수준의 무예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출연, 전투 장면에서는 태권도와 아크로바틱, 각종 무술이 결합된 완벽한 퍼포먼스로 강도 높은 액션무대를 선사한다.

미니특공대X

일시 1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R석 4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지난 2017년 9월,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사랑채극장은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전용극장으로, 그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지난해는 관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객석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212석이었던 객석 수는 300여석으로 늘어났으며, 컬러풀한 벤치형 객석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는 물론 함

께 온 어른 관객들도 불편함 없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관 기념작인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 가지 안전약속'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을 무대에 올린 사랑채극장은 올해는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을 첫 작품으로 창작가족뮤지컬 '아빠! 함께해요!', 어린이 안전체험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등 세 작품을 선보인다.

사랑채극장 2019년 첫 번째 작품인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은 전래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가 아닌 타임머신을 타고 종횡무진 달리는 꼬비깨비들이 펼치는 신나는 시간여행을 그린 창작뮤지컬로, 만화같은 캐릭터와 생동감 넘치는 무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19년 기획공연 I 극단 에저또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2019년 첫 작품으로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을 무대에 올린다.

대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화로운 꼬비깨비의 세계,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꼬비깨비들 앞에 타임머신이 나타나고, 꼬비깨비들은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어디든 달려간다. 인형세계에 갇힌 아이들을 통해서서는 게임중독에 빠진 어린이들에게 경각심을 전해주며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등장하는, 거짓말로 이별하게 되어 하늘길에 갇힌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서서는 거짓말은 나쁘다는 교훈을, 명작동화 속 등장

하는 과거에 빠진 아이들과 외로운 마녀를 통해서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어린이 관객들에게 가르쳐준다.

한편, 사랑채극장에서는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에 이어 4월부터는 가사와 양육문제를 재미있게 그려낸 뮤지컬 '아빠! 함께해요!'(4월 9일~6월 16일)에 이어 7월부터는 2015년 국민안전처 안전문화창작뮤지컬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어린이 안전체험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7월 2일~9월 8일)을 무대에 올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올 한해도 가족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일시 1월 22일(화)-3월 22일(금)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클래식음악이 주는 감동과 삶에 대한 철학적 신념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_4.태(態)’



◆ 음악평론가 김윤선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가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단어를 ‘외로워서(孤) 술 한 잔 하고(酒), 잊고(忘) 싶으나 결국 자신이 택할 태도(態)는 무엇인가’라는 새롭고 흥미로운 테마로, 클래식음악이 주는 감동과 삶에 대한 철학적 신념으로 많은 생각과 공감대를 갖는 시간이었다.

외로움과 혼돈할 수 있는 ‘고(孤)’는 절대적인 고독을 의미,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다른 사람과의 격리, 자신의 시선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 우위에 서서 스스로 유행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고독은 홀로 충족을 느끼며 기존의 흐름으로부터 이탈, 새롭고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외로움과 차이를 명쾌히 정리하자면 스스로 혼자임을 자처하고 창의적 인간의 행위의 기본으로 본다. ‘주(酒)’는 술을 통해 자기를 벗어나 황홀경에만 빠지는 부정적 견해보다 취하는 것을 미학적 의미로 볼 때 자신만의 다림추로 다스려 더욱더 확장된 세계로 향하여 환상을 꿈꾸는 문명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 무한 확장을 바라며 환상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망(忘)’은 자신을 잃어 맨 모든 것을 잊고 틀을 깨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바로 ‘태(態)’라 보며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성공에 대한 기억으로 제자리에 머물기보다 고요한 상태에서 망각을 통한 진화가 바람직하다고 최진석 교수는 이야기한다.

롯데시니의 ‘도둑까지 서곡’으로 활기차게 시작, 타악기의 동적인 에너지와 화려함이 돋보이는 이곡은 활동적이고 역동적 힘을 쥐게 하는 연주로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이어서 연주된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드어’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괴로움 속에 아름다운 조

국에 대한 예찬과 애국심을 표현한 곡이다. 정치적 이유로 연주를 금지당하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분노를 담은 국민의 정서를 표현하여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데, 세계관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갈구하는 작곡가의 의지는 이리저리 짓밟힌 조국의 운명을 떨쳐내고자 하는 독립된 자아를 나타내는 위대함이 보인다. 시벨리우스의 장엄하고 비장함과 독특한 민요조의 서정성이 녹아든 오충근의 지휘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욱 빛났다. 대만 작곡가 리체이의 부산환상곡 ‘도라지’가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와 해금연주자 전지현의 협연으로 이어졌다. 엄격한 질서로 정렬된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만남은 표현의 폭이 넓은 국악기와 정확한 음정과 뉘앙스를 가진 서양음악으로 이미 존재하는 음악적 어법을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시도의 환상곡으로 유려한 바이올린 선율 속에 도라지를 노래하는 해금의 사운드가 절묘한 하모니를 이뤄갔다.

클래식 음악의 기본 정신은 독립이다. ‘내 음악에는 나만 있다’고 말한 베토벤처럼 음악은 내안에 나만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듯 독립된 존재로 다른 무언가를 알기 위해 뻗어가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삶의 전략에 있어 아는 것에서 벗어나 모르는 것으로 향하는 바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위함이며 그런 의미에서 노자와 베토벤 시즌Ⅱ ‘고주망태’는 고유해야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고유함을 실천하고 고백하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세상에 없는 유일한 브랜드 ‘노자와 베토벤’을 기획한 마에스트로 오충근만의 유일무이한 공연이다. 3년째 이어가는 세계 유일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2018 노자와 베토벤의 흥행으로 ‘2019 노자와 베토벤’ 시즌Ⅲ ‘고진감래(苦進感來)’가 (재)문화회관의 기획공연으로 신선한 기대를 모을 것이다.

광대들의 목숨 건 놀이 한 판

부산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이(爾)-왕의 남자’



◆ …… 동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철우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왕의 남자’로 더 유명해진 원작 희곡 ‘이’를 부산시립극단에서 제63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렸다. 더구나 이번 정기공연은 부산시립극단의 20주년 창단기념 공연이기도 하여 그 뜻이 평상시의 정기공연과는 사뭇 남달랐다.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명의 객원배우들이 무대에서 특별 출연을 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한 것도 같은 맥락이리라.

희곡 ‘이’의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정치적 혼란기인 연산조를 배경으로 폭군 연산의 광기와 희락원 광대 ‘공길’, 그리고 이를 시기하는 장녹수와 ‘공길’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광대 ‘장생’이 보여주는 관계를 통해 권력과 순응, 집착과 사랑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면적인 고통과 성장, 감춰진 욕망을 보여주기에 매력적이다. 남자이면서도 여자다운 공길에게 정을 느끼는 연산과 이를 질투하는 녹수의 모습은 사랑에 굶주린 자들의 어긋난 욕망을 표현한다. 장생을 보호하려는 공길 역시 일방적 사랑의 아픔을 드러낸다. 결국 중종반정으로 극이 매듭지어지는 상황에서 연산만이 죽은 ‘공길’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런 관계의 어긋남 속에서 극적 재미와 긴장은 연산의 핏빛 정치와 폭력적 행위 그리고 광대들의 놀이를 통한 유희적 행동에 기인한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이미 극장에서 영화로 감상한 작품이기에 영화와는 다른 연극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객의 재미인 셈이었다. 객석의 조명이 아슬아슬하면서 점차 증폭되는 여인의 흐느낌과 같은 구음으로 시작되는 연극은 왕인 연산이 제문을 태우는 불을 드러냄으로써 강렬한 시작을 보여준다. 자신이 무오와 갑자에서 많은 신하들을 처단하였음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과 같은 슬픔은 검은 천으로 온몸을 두른 죽음의

탈을 쓴 저승사자들과 사지가 훼손되어 걸린 시신들의 무대이미지와 중첩되면서 그로테스크한 공포감을 전달한다. 저승사자들의 춤은 연산의 정치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살육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광대들의 오락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저승사자들은 이내 광대로 전환되면서 아크로바틱을 통한 현란한 몸짓을 통해 광대가 지닌 끼와 재주를 선보인다. 연극적인 갈등을 제외하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광대들의 행위인 셈이다. 무대 후면에 단을 쌓아 임금의 용상을 높이고 양 쪽으로 내려진 격자창의 이미지와 용상 위를 채운 사선으로 된 기하학적 이미지를 기본으로 무대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는 장치를 무대 위로 내려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결합시킴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하고자 한 점이나 음향을 통한 심리적 요동을 드러내는 것들은 아마도 중극장의 큰 무대를 효과적으로 채우려는 노력으로 읽힐 수 있었다. 다만 천장에서 내리는 무대장치의 화려함과 크기는 시각적으로 어떤 장소의 변화나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크기와 규모면에서 인물을 압도하는 까닭에 자칫 원래의 의도와 달리 무대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요 배역들은 극장의 크기로 인한 과도한 몸짓과 발걸음을 동반한 움직임으로 인해 대사가 관객에 잘 전달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길’과 ‘녹수’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무선마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안이었다. ‘홍내관’의 숨겨진 욕망으로 녹수를 제거하는 장면이나 공길의 죽음이 불러오는 연산의 슬픔이 가슴에 크게 와 닿지 않는 것도 인물간 갈등을 통한 해결이라기보다 개인화된 음모와 욕망을 표면화하려다 균형이 깨져버린 결과여서 극적 긴장이 풀어진 점도 다소 아쉬웠다.

부산문화회관

2019 정동하 콘서트 in 부산 'Cross Road'

일 시 1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1만원·R석 9만9천원·S석 7만7천원
문의 (주)하늘이엔터 1899-0042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의 명품 보컬리스트 정동하 부산콘서트.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대한민국 락 그룹 부활의 보컬로 활동하다 2014년부터는 솔로로 활동 중인 정동하는 특히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에 출연하며 출중한 노래실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데뷔 13년 만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온 정동하의 이번 무대에서는 뚜루뚜, 되돌려놔줘, 골목길, 사노라며, 생각이나 등 신곡과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인순이&드니성호 신년음악회

일 시 1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19년 새해를 맞아 영원한 디바 인순이와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가 부산시민들을 위한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신년무대.

데뷔 40주년을 맞는 가수 인순이는 지난 1978년 여성그룹 '희재매'의 멤버로 데뷔한 후 발라드, R&B, 댄스, 팝, 심지어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흡입력 강한 무대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성장한 개인사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드니성호는 그동안 조수미, 인순이 등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과 음반작업을 펼쳐 대중들에게 친근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스트링 아데소 창단연주회

일 시 1월 6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을 주축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리,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김민승, 이호찬 등으로 구성된 스트링 아데소(String Adesso) 창단연주회. 스트링 아데소는 앞으로 바로크와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하며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아데소(Adesso)'는 이탈리아어로 '지금'이라는 뜻.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주 K. 423
할보르센/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파사칼리아'
도흐나니/현악3중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10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7회 정기연주회 2019 신년음악회

일 시 1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9 신년음악회'.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보다 깊이진 연주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당당히 자리잡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립적인 관현악곡으로 즐겨 연주되는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푸치니 '교향적 기상곡',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으로 2019년 기해년의 문을 열어준다.

- 지휘/최수열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 미술관에 간 율리, 우리엄마

일 시 1월 10일(목)-13일(일), 17일(목)-20일(일)
목-금요일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계적인 그림책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음악 교육곡으로 제작한 '미술관에 간 율리', '우리엄마'. '미술관에 간 율리'는 공연장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음악수업으로, 어린이들의 키보다 더 큰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두 분의 음악 선생님이 노래로 대화하면서 음악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가족음악극 '우리엄마'는 엄마의 목소리로 들던 그림책을 음악과 춤, 악기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어린이들에게는 아직은 어려운 클래식음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19년 기획공연 I 극단 에저도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일 시 1월 22일(화)-3월 22일(금) 오전 11:0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2019년 첫 작품으로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극단 에저도가 제작한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은 전래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가 아닌 타임머신을 타고 중형무진 달리는 꼬비깨비들이 펼치는 신나는 시간여행을 그린 창작뮤지컬로, 만화같은 캐릭터와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己亥年 新年음악회**

일 시 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己亥年 新年음악회’.

수석지휘자 이정필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연희팀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의 협연으로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신모듬’을 들려준다.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 협연/국립부산국악원 연희팀(장구 전성호, 팽과리 최재근, 징 금동훈, 북 한운섭),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장구 전학수, 북 최우성, 팽과리 이주현, 징 박재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일 시 1월 26일-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R석 4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겨울방학을 맞아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들의 히어로 ‘미니특공대X’의 대활약을 그린 액션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전작보다 한층 강해진 미니특공대 X와 지구정복을 꿈꾸는 외계인 제노스 군단의 한판 대결을 그린 이번 ‘미니특공대 X’는 높이 4m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4단합체 로봇의 전투장면을 비롯해 TV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대형 LED 화면과 시선을 사로잡는 조명·음향·특수효과 등을 통해 어린이들을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해민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이해민 010-5419-2612



섬세한 감성, 따뜻한 음색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이해민 독주회. 부산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슈만국립음악대학교 전문사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이해민은 독일 유학시절부터 독주 및 앙상블 연주를 통해 고전에서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소통해 왔으며 이번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바장조 Hob.XVI:23
브람스/7개의 환타지 작품 116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제19번 다단조 D.958

**김지연 아코디언 팝소악제트라
2019 신년 부산 첫 콘서트**

일 시 1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1층 3만원, 2·3층 2만원
문의 김지연 아코디언 팝소악제트라 02-579-7080



국내 유일의 순수 아코디언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김지연 아코디언 팝소악제트라’가 마련하는 2019 신년 부산 첫 콘서트.

지난해 3월 러시아 로스트프나도누에서 열린 국제아코디언연합 주최 ‘제야코디언연합 추치 ‘제연콩쿠르’ 오케스트라 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1위 수상한 김지연 아코디언 팝소악제트라는 지난 2015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에서 아코디언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 지휘/김지연
- 색소폰/남상일
- 기타/박성광
- 가수/김승엽, 류경한, 조우림
- 베이스기타/김대희
- 드럼/류재경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미켈란젤로 VS 다빈치**

일 시 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그림을 보며 클래식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보는 예술 융합 프로그램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_미켈란젤로 VS 다빈치’.

2019년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부산을 찾는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이번 무대에서 조속한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암흑기였던 중세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두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세계와 그들의 열정, 갈등을 주제로 명화 속 클래식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시대 속의 클래식,
클래식 속의 시대**

일 시 1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Major and minor 010-8717-7963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통해 당대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추적해보는 인문학 클래식 콘서트 ‘시대 속의 클래식, 클래식 속의 시대’.

2017 독일 본 베토벤콩쿠르 수상자 이호정,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최영민 등 부산 출신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평균율, 모차르트 아리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슈만과 브람스의 가곡에 이어 드뷔시, 스크리아빈, 쇤베르크, 드피외, 카푸스틴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테너 김상곤 교수 명예퇴임 기념독창회

일 시 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한 테너 김상곤 교수 명예퇴임 기념독창회.

정제된 목소리와 깊이 있고 섬세한 표현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한 김상곤은 벨기에 베르비에 국제성악콩쿠르 1위, 이태리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성악콩쿠르 1위, 프랑스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1위, 스위스 자코모 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 2위, 이태리 나폴리 국제성악콩쿠르 3위 등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 피아노/최은주
- 해설/탁계석(음악평론가, 예술비평가회장)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2019 새해음악회

일 시 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2019년 새해를 맞아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2019 새해음악회'.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가 돋보이는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중 '피날레'를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요제프 슈트라우스 '근심없이' 등 폴카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브람스 '헝가리 무곡', 그리고 이탈리아의 밝은 태양과 열정이 느껴지는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으로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다.

2019 이승환 전국투어 '최고의 하루'-부산

일 시 1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2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3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의 (주)하늘이엔티 1688-6675



지난 29년동안 심음이 공연을 만들어온 '공연의 신', '공연천재' 이승환 콘서트.

낮선 듯 익숙한 모습으로, 달콤쌉싸름한 우리들 이야기를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신나게 들려드릴 이번 무대에서는 '천일동안',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등

귀에 익은 명곡들과 마이크 없이도 찌렁찌렁 울리는 이승환의 경이로운 가창력과 절대 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체력, 그리고 각종 레이저 등 국내 유일 공연 장비 보유 가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빛과 섬세한 음향으로 최고 인생공연을 펼친다.

2019 신년음악회 비엔나 바로크 오케스트라

일 시 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원, A석 2만5천원
문의 와이엘케이코리아 010-4460-4499



지난 2014년 세계적인 음악가들로 창립된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쾨보른 궁에서 열리는 클래식 상설 공연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비엔나 바로크 오케스트라 2019 신년음악회.

특히 국내에서는 2017년 'JTBC 몽쳐야 뜬다' 비엔나 편과 2018년 'tvN 꽃보다 할배 리턴즈' 동유럽 편 방송 출연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2016년과 2017년 한국 일산 컨텍스트 여행박람회를 통해 한국 관객과 만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비발디, 브람스와 베토벤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로 특별한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싱 스트리트'

일 시 1월 25일 금요일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무료(15세 이상 관람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련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싱 스트리트'.

영화 '윈스', '비긴 어게인'을 연출한 감독 존 카니의 세 번째 음악영화인 '싱 스트리트'는 19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10대 청춘의 꿈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코너는 전학간 학교에서 라피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밴드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코너는 급기야 뮤직비디오 출연까지 제안하고 라피나의 승낙을 받는다. 날아갈 것 같은 마음도 잠시, 어설픈 멤버들을 모아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를 급결성한 코너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노래를 만들고 인생 첫번째 콘서트를 준비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

일 시 2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VIP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펼치는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

폭발적인 무대와 가창력의 소유자 차지연을 비롯해 수많은 대작에 출연한 뮤지컬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사, 현재 뮤지컬계의 가장 트렌디한 배우 민우혁, 탄탄한 연

기와 명품 보이스의 박송권 등 최고의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4인의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맑고 중후한 음색의 임현수, 폭넓은 성량으로 마음을 울리는 소프라노 염유리 등 슈퍼양상이 출연, 유명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국립부산국악원 새해 굿 시리즈
굿(GOOD)이로구나!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립부산국악원이 마련하는 특별공연 '굿(GOOD)이로구나!'. 한국적 특수성과 전통문화예술의 원형이 담긴 종합예술로, 우리 전통문화의 고유한 멋을 전달하고 새해 운수대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첫날인 5일 '황해도 철물이굿'을 시작으로 '동해안별신굿', '해남씻김굿', '서울천신굿' 등 각 지역에 전승되어오는 다양한 굿판이 펼쳐진다.

5일 황해도 철물이굿
12일 동해안별신굿
19일 해남씻김굿
26일 서울천신굿

연극 | Play

연극 설록홈즈

일 시 11월 1일(목)-2019년 2월 17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공휴일 공연시간 확인,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추리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설록 홈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설록홈즈'. 천재 설록홈즈에게 어느 날 수수께끼의 암호의뢰서가 도착한다. 의뢰서 도착 후 사건종료까지는 60시간밖에 없고 설록홈즈와 왓슨은 벌스톤 영주관으로 들어간다. 밀실과도 같은 성,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짙어지는 의혹 속의 사건은 점점 꼬여만 가고, 수사가 거듭될수록 설록홈즈는 인간과 진실사이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으로 들어간다. 밀실과도 같은 성,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짙어지는 의혹 속의 사건은 점점 꼬여만 가고, 수사가 거듭될수록 설록홈즈는 인간과 진실사이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2일, 9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6일 오페리아노 시리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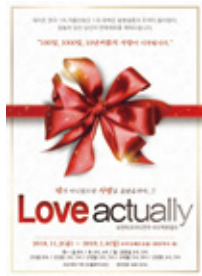
: 미국 작곡가 이야기
한양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수민, 문물기가 들려주는 '오페리아노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이수민은 미국 뉴욕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작곡가 겸임교수로, 문슬기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전문연주자과정,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연주학박사, 미국 인디애나 볼 주립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덕원예술고등학교 음악부 전임교사로 있으며 선화예중, 선화예고, 계원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 해설/김은진

로맨틱코미디극 러브앤크추얼리

일 시 11월 2일(금)-2019년 1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1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앤크추얼리'. 잠들어있던 관객들의 연애세포를 깨워주는 이번 작품은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는 따끈따끈 연애 100일차 커플부터 만나면 투닥거리기 바쁜, 술술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차 커플, 가족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10년차 커플까지 세 커플의 리얼 로맨스를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앤크추얼리'. 잠들어있던 관객들의 연애세포를 깨워주는 이번 작품은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는 따끈따끈 연애 100일차 커플부터 만나면 투닥거리기 바쁜, 술술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차 커플, 가족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10년차 커플까지 세 커플의 리얼 로맨스를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23일 강유정&한수연의 피아노 듀오연주회

'Orchestral Piano'

부산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함께 음악공부를 마친 피아니스트 강유정, 한수연의 듀오무대.

강유정은 The 28th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Delia Steinberg' Finalist, The 19th concurso Internacional de Piano de Ibiza 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겸임교수, 앙상블 판 멤버, 한국피아노학회, 한국리스트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수연은 이태리 'Antonio Napolitano' 국제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고 현재 부산예중고, 인천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30일 창작국악단 젊은풍류 '계절에 대한 찬미'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전통음악가들로 창단된 후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창작국악단 젊은풍류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로 흐르는 음악으로 감상하는 풍경 속에서 시간과 인생, 자연과 인류를 노래한다.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11월 16일(금)-2019년 2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KNN 664-7880



속고 속이는 우리의 인간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하는 레이 쿨리의 대표작 '라이어' 1탄.

마음 약한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한 하루 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그린 연극 '라이어'는 지난 1998년 국내 초연 이후 35,000회 공연, 500만 관객을 들

파하며 국민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워블던에는 메리, 스트리트헤에는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 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 그의 완벽한 일정은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엇갈리기 시작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인해 상황은 더욱 더 꼬여만 가는데...

기타공연장

연극 마지막 바캉스

일 시 12월 20일(목)-2019년 1월 26일(토)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일-수요일 공연 없음) 레몬트리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NMD엔터테인먼트 626-0116



불현듯 찾아온 마술 같은 사랑에 이끌려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영원한 바캉스를 떠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마지막 바캉스'.

젊은 남녀가 고립된 성에 갇혀 40년간 살고 있다. 40년간 지속된 똑같은 상황의 반복 때문에 시간은 흐르지 않으며,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늙지 않는다.

악몽처럼 지긋지긋한 이 곳을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던 두 남녀는 마침내 구조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연극 '마지막 바캉스'는 사랑이 숨겨놓은 영혼의 늪 안에 빠져있는 두 남녀를 통해 사랑, 그 이후의 사랑에 대해 고민해본다.

뮤지컬 복순이할배 시즌 12

일 시 12월 21일(금)-2019년 3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2/6일, 3/1일 오후 6:00, 1/1일-1/3일, 2/5일, 월요일 공연없음) 아트레볼루션 전용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트레볼루션시어터 010-3946-1604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를 간다.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된다. 과연 태수는 불같은 성정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할배'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1월 4일(금)-3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공휴일 공연시간 확인,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극의 절대강자 '작업의 정석'.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뮤지컬 한밤의 무대

일 시 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일반 2만5천원, 초중고생 2만원

문의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 1588-9155, 010-5060-2788



지난 2012년 7월 창단한 후 매년 정통극에서부터 창작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극단 고춧가루부대의 2019년 첫 무대 '한밤의 무대'.

'지금, 없는 이야기'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 전날 일방적으로 공연이 취소되어버린 극장에 남아있는 연극인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가진 사람들과 꿈을 지키려는 사람,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작, 연출/안준영
● 음악/박혜성, 길연범

연극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일 시 1월 8일(화)-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4만원

문의 아트레볼루션시어터 010-9595-3648



초등학교 교사 강희 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텔레파시 초능력자인 인터넷 설비기사 힘찬. 솔직하면서도 순수한 힘찬의 모습에 빠진 강희는 힘찬을 사랑하게 되고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생각하는 강희는 프로포즈를 기다리지만 변

변찮은 직업과 집안 때문에 고객을 망설이는 힘찬, 과연 두 주인공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사랑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연애와 다른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려낸다.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일 시 1월 11일(금)-2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2019년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는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1976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실제 일어난 탄광 파업을 소재로 한 '1976 할란카운티'는 '블러디 할란'이라고도 불릴 만큼 격렬했던 역사적 사건을 극으로 충실히 옮겨 비장함과 긴장감이 가득한 뮤지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작은 광산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과 승리가 함께 하는 권리 투쟁의 역사를 재현하며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 시 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감동후불제(김치, 쌀, 등 식재료 가능)
문의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 010-5060-2788



매년 워크숍을 통하여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가 워크숍 단원들과 함께 제작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차가운 교훈과 자로젠 듯 명확한 주제들만 남아버린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용기로 이상한 나라로 빠져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 작/윤혜정 • 연출/안준영
- 음악/박형주, 김연범, 이현준
- 출연/이정기, 김진외, 이소정, 이현정, 유하영, 신예원, 신동환, 이찬우, 김찬우, 강병웅, 박찬등 외

시네바움 아트홀바움 1월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30(1일 강좌없음)
 시네바움 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시네바움 아트홀바움 010-2774-3455



7일(월) 박기철 교수의 이야기콘서트(5)
 현대 팝뮤직의 사조와 흐름 블루스부터 엘비스 이후 EDM(Electronic Dance Music)까지
 • 강사/박기철(경성대 법정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8일(화) 윤산의 고전읽기(6) 주자철학, 이것이다.(2)

- 강사/윤산 김수정(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4일(월) 21세기 디지털패러다임과 새로운 영화미학
 • 강사/서대정(부산대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15일(화) 부산지역 아리랑의 전승과 생성의 국면

콘서트 | Concert

2018-19 엠씨더맥스 콘서트 - 부산

일 시 1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8만8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2018 노을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별' - 부산

일 시 1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문의 (주)밝은누리 1566-9621

2019 10cm Concert '4.2' - 부산

일 시 1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전석 9만9천원
문의 매직스트로베리(주) 02-336-5422

- 강사/박경주(부산외대 글로벌인문학대학 한국어문화학부교수 한국민요학회 회장)

21일(월) 심진호 교수의 예술기행(15)
 영화 '하울, How'에 나타난 시와 그래픽 노블과의 만남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22일(화) 일본의 미학(14) 카르페 디엠과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미학 그리고 영화,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전임연구원)

28일(월) 전통건축의 현대적 의미
 • 강사/김기수(동아대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교수)

29일(화) 이부현교수의 즉문즉답(4) 초월과 자유, 육조 혜능의 '육조단경'
 • 강사/이부현(부산과학기술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인문학연구소 소장)

제135회 알바트로스 詩낭송회 신년 주제 시낭송콘서트

일 시 1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서면 신세계안과 5층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행사 | Event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2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에서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감동이 있는 클래식음악 영상감상회. 클래식 애호가들이 꼭 만나 보고 싶던 해외의 최신 클래식음악 연주회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품질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2019년 빈(비엔나)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실황 생상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베토벤 교향곡 제4번,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비발디 만돌린협주곡, 리코더협주곡 등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謹賀新年! 음악으로 만나는 사랑의 선율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8일(684회) 사랑의 노래 1
15일(685회) 사랑의 노래 2
22일(686회) 사랑의 노래 3
29일(687회) 이달의 책 읽기 '만남(밀란 쿤데라 저, 한용택 옮김, 민음사)

기타공연장

무지크바움 클래식음악 특강
장일범과 함께하는
동토의 러시아 음악기행

일 시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3만원(예약 필수, 45명 한정)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해설자 및 평론가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일범과 함께하는 러시아 음악기행.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세계에서부터 러시아 민요, 전통악기까지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삶을 조명해본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의 운명 교향곡/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러시아 센티멘탈리즘의 진수: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2번
러시아인들의 애환을 반영하고 추위와 향수를 달래준 러시아 민요
집시의 노래 등

전시 | Display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동아시아 현대미술전 '보태니카'

일 시 8월 24일(금)-2019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12층 로비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Ottmar hörlottmar

일 시 9월 21일(금)-2019년 2월 2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740-4244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8

일 시 10월 26일(금)-2019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15일(화) 오후 7:30, 16일(수) 오후 2:00,
25일(금), 28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5일(화) 오후 7:30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7강 교향곡과 가곡의 거장, 현대음악의 선구자 '구스타프 말러'**
세기말의 정서를 그려낸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현대음악의 선구자 말러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아

보는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37번째 강좌.
'교향곡은 하나의 세계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곡한 말러의 작품은 교향곡을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올려놓았으며, 한동안 묻혔었다가 1960년 이후 레너드 번스타인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16일(수) 오후 2:00 **여행, 예술을 만나다 특강 '유럽 여행의 기술'**
여행은 나의 삶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유럽에서 10년간 여행자의 삶을 살다가 귀국, 아트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이 알려주는 유럽여행에 대한 모든 것 '유럽 여행의 기술'.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5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행복한 여행 인문학 이야기 제13강 '영국 런던'**
10년간 유럽여행자의 삶을 살아온 강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런던의 주요 관광지과 역사, 문화를 알아보고 특별한 2019년 새해를 시작한다.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8일(월) 오후 7:30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 제21강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자신의 내면 풍경을 그 만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색채로 펼쳐내면서 '색채의 마술사'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러시아 태생의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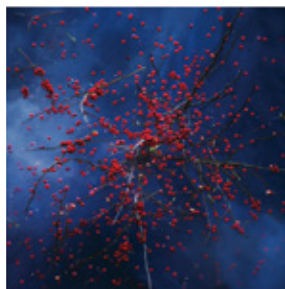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3주년 기념전
'최영옥'

일 시 10월 25일(목)-2019년 1월 8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전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박길주, 이고은 2인전

일 시 1월 3일(목)-2월 14일(목)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신카이 마코토展
'별의 목소리'부터 '너의 이름은'까지-부산

일 시 12월 14일(금)-2019년 3월 3일(일)
부산백스코 제2전시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주)타입커뮤니케이션 02-2261-1393

'LOVELY DAISY'展

일 시 1월 4일(금)-2월 6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작가 굴리굴리의 신작 회화 및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등 그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LOVELY DAISY'展.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부산 탐식 프로젝트

최원준 지음 / 산지니
288p / 1만8천원

최원준 시인이 부산의 음식으로 부산을 들여다 보는 책을 펴냈다. 최원준 시인은 부산 구석구석을 거닐며 오랜 시간 부산사람들이 먹어온 음식을 먹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식인문학과 음식문화사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음식문화 칼럼니스트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이 책은 그가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기사를 엮은 책이다. ‘음식의 문화인류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산, 부산사람, 부산의 정체성’을 부산음식에서 찾아보고자 했던 기획 기사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매주 연재했던 기사는 부산음식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최원준 시인은 음식은 시대를 담은 그릇이자, 해당 지역을 읽어내는 텍스트라고 말한다. 당대의 음식과 음식문화로 그 시대의 정치·경제·문화를 통찰할 수가 있고, 한 지역의 지역사와 사회상, 지역 사람들의 기질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움뚫은 곳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 한국전쟁과 임시수도 시절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정착했던 이주민의 도시이다.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큰 가마솥에 끓여낸 부산 음식을 통해 부산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장날

이흥재 사진, 김용택·안도현 글 / 시공아트
324p / 2만원

온 나라 곳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이 점차 사라져간다. 근동 사람들이 다 모여 들고, 팔도의 상인들이 발품을 팔며 찾아오던 풍성한 장날의 풍경도 점점 잊히고 있다. 며칠에 한 번씩 사람과 물건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날은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의 사고의 장이자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의 장소였고,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뉴스 채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소식을 전했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고 파는 물건에는 마음을 담았고, 옥신각신 물건 값 흥정도 신이 났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풍경들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현재의 장날은 겨우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생기를 잃어 가던 장날을 사진가 이흥재 씨가 정이 듬뿍 담긴 카메라 렌즈로 보는 사진집을 냈다. 이흥재 작가의 사진에 김용택, 안도현 시인이 글을 보탰다. 사람사는 세상, 풍성한 장날이 되살아났다. 흐릿해져 가는 장날에 따뜻함을 불어넣고, 표정을 덧붙이고, 사연을 끌어내 생생한 장터를 재현한 책이다. 장터를 오가는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해 카메라 앞에 세우자, 그들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베토벤

안 카이에스르 지음, 홍은정 옮김 / 길
868p / 4만5천원

‘베토벤 아카데미’의 예술 감독으로 있었던 안 카이에스르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쓴 베토벤 평전. 지금까지 나온 베토벤 관련 평전 가운데 가장 엄정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출간 당시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독자들로부터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됐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린 시절 위인전 시리즈 안에서 베토벤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고, 위대한 음악가의 신화를 솔하게 들어왔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까. 왜곡된 부분,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 안 카이에스르는 기존의 평전들이 갖고 있는 흠결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오로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베토벤 평전을 썼다. 그리하여 ‘천재’ ‘영웅’과 같은 신화 만들기 요소들을 걷어내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베토벤의 실상이 이 책에 담겼다. 베토벤은 음악의 역사는 물론,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잘못 알려져 왔다면, 우리는 베토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 베토벤을 다시 만나 볼 수 있는 책이다.

부산문화회관 소식

◆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이용관 선임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에 이용관 전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이 임명됐다.

(재)부산문화회관 제2대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용관 대표이사는 1956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했으며 단국대학교 예술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문화사업부장과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사무국장-이사, 부천문화재단 전문위원, 안양문화예술회관 관장, 한국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2년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부산을 알고 있지만 부산을 객



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은 이용관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1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적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 (재)부산문화회관 2019년도 1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12월 17일부터 수강생 모집, 1월 2일 개강

실기강좌에서부터 인문학, 교양강좌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수준높은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년도 1분기 강좌가 1월 2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특히 매 분기마다 참신한 주제의 신규강좌를 개설해온 문화예술아카데미는 2019년 올 한해 고품격 프리미엄 강좌와 이색적인 특강 등 더욱 다채롭고 수준높은 강좌들을 마련,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우선 올해 처음 열리는 프리미엄 강좌 ‘지휘자 클래스’는 평소 배울 기회가 적었던 지휘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강좌로, 부산시립합창단 전진 부지휘



자가 일대일로 합창지휘법을 지도한다. 따뜻한 음식과 풍부한 울림으로 사랑받지만 상대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은 악기 ‘첼로’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수준 높은 지도로 배울 수 있는 ‘첼로 강좌’ 역시 올해부터 새롭게 시민들과 만난다. 또, 최근 현대인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위한 이색적인 특강들도 마련된다. 유학파 출신의 북 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효은과 함께하는 ‘Make it! 인생명함’, 유럽의 예술,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유럽의 미술관’, 유럽 여행 인문학’ 등 부산문화회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강좌가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다.

매 분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존 인문학 강좌 역시 올해 수강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셰익스피어와 오페라’라는 강좌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악평론가 이용숙이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음악사를 빛낸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집중 탐구해보는 ‘이용숙의 클래식 무대’로 다시 한번 수강생과 만난다. 이밖에 재수강률이 높기로 유명한 서양화가 김은주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매니아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미학적인 사진기법과 출사 포인트를 배우는 사진작가 뿌리아 김의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시대별 작품들에 담긴 아름다움과 끊임없는 고찰을 명쾌한 해설로 풀어내는 장원 교수의 정통 미술사강좌 ‘Artistic Fantastic 미술사:고전 미술사’, 미술의 소재에 집중하며 동·서양문화권을 비교·감상해보는 재밌는 미술사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소재와 매체’ 등 기존 강좌와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지도로 진행되는 실기강좌도 2019년 올해 계속된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 607-6061~4, www.bscc.or.kr

2019년도 1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12.17(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문의 : 전시교육팀 051) 607-6061~4

특 강						
Make it! 인생명함	1.23 - 1.24	수, 목 (2회)	19:00-21:00	미술실	15	50,000 <small>*재료비 포함</small>
유럽의 미술관	2. 1 - 2.22	매주 금 (4회)	11:00-13:00	컨퍼런스홀	30	80,000
유럽 여행 인문학	3. 8 - 3.29	매주 금 (4회)	11:00-13:00	컨퍼런스홀	30	80,000
인문학 · 교양						
<i>new</i> 이용숙의 클래식 무대 : 작곡가의 음악과 철학	1. 2 - 3.13	매주 수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20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초급)	1. 7 - 3.18	매주 월 (10회)	10:30-12:30	연습실	15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응용)	1. 7 - 3.18	매주 월 (10회)	14:00-16:00	연습실	15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1.15 - 3.26	매주 화 (10회)	14:30-16:30	컨퍼런스홀	30	20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 소재와 매체	1.10 - 3.14	매주 목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5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고전미술사	1.12 - 3.16	매주 토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포트폴리오)	1. 5 - 3. 9	매주 토 (10회)	10:00-12:00	강의실	20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초급)	1. 5 - 3. 9	매주 토 (10회)	15:00-17:00	강의실	20	120,000
실기 (음악 · 무용)						
<i>primium</i> 지휘자 클래스	1. 8 - 3.19	매주 화 (10회)	19:30-21:00	합창단 연습실	15	360,000
<i>primium</i> 첼로	1.12 - 3.16	매주 토 (10회)	13:00-14:30	레슨실	8	240,000
<i>new</i> 라인댄스 (초급)	1. 8 - 3.19	매주 화 (10회)	11:00-12:00	연습실	20	100,000
라인댄스 (중급)	1.10 - 3.14	매주 목 (10회)	13:00-14:00	연습실	20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1. 9 - 3.20	매주 수 (10회)	10:30-11:30	연습실	20	100,000
프리미엄 발레	1.11 - 3.22	매주 금 (10회)	14:00-15:00	연습실	20	100,000
한국무용 (산조춤)	1. 8 - 3.19	매주 화 (10회)	15:00-16:00	연습실	20	100,000
한국무용 (기초)	1. 9 - 3.20	매주 수 (10회)	15:00-16:00	연습실	20	100,000
한국무용 (태평무)	1.10 - 3.14	매주 목 (10회)	15:00-16:00	연습실	20	100,000
바이올린 A	1. 7 - 3.18	매주 월 (10회)	17:30-19:00	강의실	10	120,000
바이올린 B	1. 7 - 3.18	매주 월 (10회)	19:30-21:00	강의실	10	120,000
클라리넷 A	1. 7 - 3.18	매주 월 (10회)	17:30-19:00	레슨실	10	120,000
클라리넷 B	1. 7 - 3.18	매주 월 (10회)	19:30-21:00	레슨실	10	120,000
사물놀이	1. 8 - 3.19	매주 화 (10회)	17:30-19:00	연습실	12	120,000
가야금 (중급)	1. 8 - 3.19	매주 화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40,000
가야금 (초급)	1. 8 - 3.19	매주 화 (10회)	19:30-21:00	레슨실	12	140,000
해금 (초급)	1.10 - 3.14	매주 목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해금 (중급)	1.10 - 3.14	매주 목 (10회)	17:30-19:00	강의실	12	120,000
해금 (고급)	1.10 - 3.14	매주 목 (10회)	19:30-21:00	강의실	12	120,000
클래식 기타 (입문)	1.11 - 3.22	매주 금 (10회)	10:30-12:00	레슨실	15	120,000
클래식 기타 (중급)	1.11 - 3.22	매주 금 (10회)	14:00-15:30	레슨실	15	120,000
클래식 기타 (초급)	1.11 - 3.22	매주 금 (10회)	16:00-17:30	강의실	15	120,000

※ 강좌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운영기(010-7361-7273)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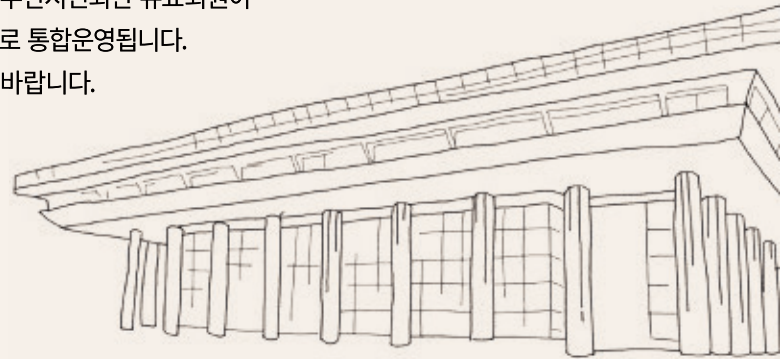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군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리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문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2018년 12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2017년 10월 통합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유료회원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통합운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회원가입

가 입 신 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방 문 신 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 매 수 령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주의사항

관람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관람권 예매 후 가상계좌 입금은 기간 내에 미 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6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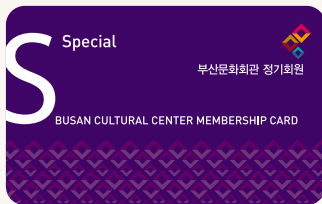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우송(7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주차장 할인(회원카드 제시시 50%)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참여기회 제공(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VIP

- 연 회 비** 10만원
- 초 대 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6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5만원
- 초 대 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4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MEMBER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연 회 비** 3만원
- 초 대 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 할인매수** 2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꼬비거세비 신나는 여행



2019. 1. 22(화) ~ 3. 22(금) 오전 11시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사)극단에서또 | 협찬 | HAENIMTOY | 티켓 | 2만원 (24개월 이상 입장 가능)
문의 및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3 www.bscc.or.kr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ticketpark.com
- 정기회원, 도서기부 60% 할인(당일 증빙서류 확인, 미지참시 차액 지불)

1m
CLASSIC
일미터클래식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작품

명화속클래식시리즈 III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Michelangelo

미켈란젤로

VS

DaVinci

다빈치

클래식큐레이터 | 조숙현

2019. 01. 25 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 한국전문음악지도자협회 1m체험클래식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 02-766-7623

옥션티켓 1566-1369 Yes24 1544-6399 위메프 쿠팡

티켓가격 S 30,000 A 20,000 | 부산문화회관 경기회원 50%할인 (경기회원카드 소지시, 증빙자료 미지참시 차액지불)

2019. 2.15- 4.30



‘노만 파킨슨’ 전시
Norman Parkinson Exhibition

스타일은 영원하다

Timeless Style

관람장소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1,2F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관람시간
월~일 11:00~20:00
(19:00 입장마감)

문의처
051.630.5232

주최, 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KT&G 상상마당

협력 Iconic Images

협찬 정관장 MALL

가 라 쇼 슈퍼스타 뮤지컬 컬

2019
02.09

±
오후 7시

2019년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일시 : 2019년 2월 9일(토) 19시

장소 :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예매 :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 051-630-5200



임현수
맑고 중후한 음색
탄탄한 연기력으로
전달하는 배우

장소연
뮤지컬부터 오페라까지
넘나드는 폭 넓은
가창력과 표현력

박송권
뮤지컬 <아이다>, <맘마미아> 등 대형 작품이
선택한 배우

리사
뮤지컬, 드라마 OST
앨범 등 폭 넓은
보컬의 소유자!

차지연
폭발적인 무대와
호소력 짙은
가창력의 소유자!

민우혁
한국 뮤지컬계의
가장 트렌디한 배우!

해운대라고

꼬등어 스노우볼

호기심 가득한 두 다리로 모험을 즐기는
꼬등어의 부산 여행기를 담은 스노우볼



Communion

2019.
2. 22 Fri.
7:3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17 클래식넥스트(Classical:NEXT),
위멕스(WOMEX) 공식쇼케이스 동시 선정

2018년도 영국매거진 더와이어(The Wire)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음반

박지하

커 뮤 니 언

피리, 양금, 생황 : 박지하
색소폰, 베이스클라리넷 : 김오키
비브라폰 : 크리스 바가(Chris Varga)
더블 베이스 : 전제곤

문 의 | 051-630-5200

입 장 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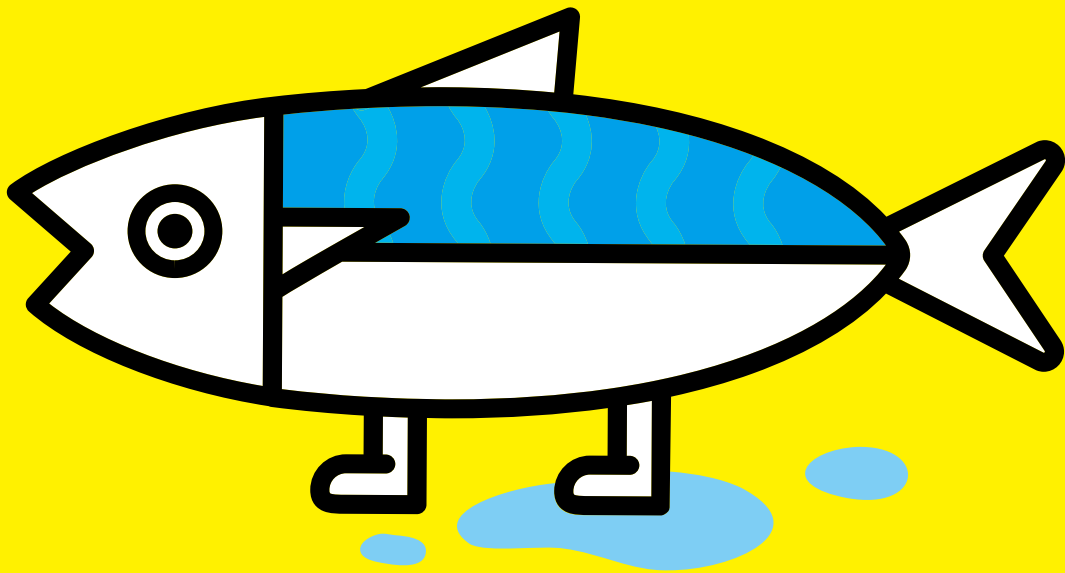
예 매 | 부산시민회관 www.bscc.or.kr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주)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90 평광우리가 1층 TEL. 051. 636. 1216






2019
인순이 & 드니성호
신년음악회

2019. 1. 12.(토) 오후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CULTURES 피니인컬처스

티켓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문의 및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ARS 1번)  인터파크 티켓 www.ticketpark.com 1544-1555